

2017년도 업무계획

---

#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

---

2017. 1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

# 목 차



<b>I. 지난 4년간의 농정 평가</b> .....	<b>5</b>
<b>II. 2017년 농정 추진 방향</b> .....	<b>13</b>
<b>III. 주요 업무 추진 계획</b> .....	<b>21</b>
<b>1.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</b> .....	<b>23</b>
(1)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.....	23
(2) 가축질병 대응 .....	28
(3)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.....	31
(4)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.....	37
(5)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.....	41
<b>2.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</b> .....	<b>44</b>
(1)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.....	44
(2) 재해 대응력 제고 .....	47
(3) 농촌주민 복지증진 .....	51
(4) 농업의 6차산업화 .....	55
<b>3.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</b> .....	<b>58</b>
(1) 농식품 수출 확대 .....	58
(2) ICT 융복합 첨단농업 확산 .....	63
(3) 식품·외식산업 육성 .....	65
(4) 농생명산업 육성 및 R&D 강화 .....	71
<b>4.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</b> .....	<b>78</b>
(1)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.....	78
(2)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 .....	83
(3) 귀농·귀촌 활성화 .....	86
(4) 현장중심 규제개선 및 소통 강화 .....	88



## I. 지난 4년간의 농정 평가



# 1. 4년간의 농정 성과

- ◆ 수출확대, 6차산업화,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 확충
- ◆ 귀농·귀촌 확대 등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 제공
- ◆ 쌀 관세화 결정,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등 농정현안의 해결
- ◆ 적극적인 현장규제 개선, 데이터 농정기반 구축, 관계부처·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농정추진 체계 보완

## 1]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

- (농식품 수출확대)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, 중국·동남아·할랄시장 등 거대시장 집중 공약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속 증가  
 ⇒ 농식품 수출 : ('12) 56.4억불 → ('16p) 64.7

- 주요 수출품목 검역협상 타결 : ('13~'16) 대중국 김치·쌀·삼계탕 등 46개 품목
- 중국 알리바바 티몰(Tmall) 내 '한국관' 개소 이후 한국식품 입점 및 판매실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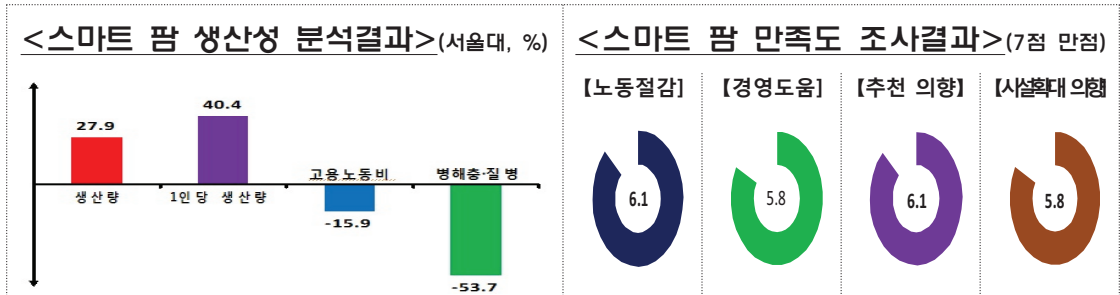
구분	'15	'16.9	증가율
<한국식품 입점 브랜드수>	162개	257개	+59%
<한국식품 판매제품수>	1,552개	2,387개	+54%
<한국식품 판매실적>	25백만원	37백만원	+48%

- (6차산업 활성화) 농업과 제조·가공, 유통, 관광을 융복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
 ⇒ 6차산업 창업자 : ('14) 392개소 → ('16) 561  
 ⇒ 농촌 방문객 전년대비 내국인 14.2% ↑, 외국인 97.6% ↑

- (예시) 영동 포도 와인 6차산업화 지구는 와인 제조업체 43개를 중심으로 와인생산, 관광상품(와인 로드) 개발, 공동 레스토랑 운영, 양조용 종자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(90개) 및 지역경제 활성화  
 \* 매출액/방문객 : ('14) 41억원/42만명 → ('16) 47/45 (14.6% ↑/7.1% ↑)

- (스마트팜 확산) 시설원에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ICT기술 융복합 스마트팜이 본격 확산

⇒ 스마트팜(온실/축사) : ('14) 60ha/30호 → ('16) 1,077/234



- (규모화·조직화) 쌀 들녘경영체 및 주산지 중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 경영비용 절감 및 생산성·품질 향상 등 경쟁력 제고

⇒ 쌀 들녘경영체 : ('12) 118개소(24천ha) → ('16) 271(61)

- 일반 재배 대비 쌀 들녘경영체 공동재배시 직접생산비 13.4%↓(KREI)

## ②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활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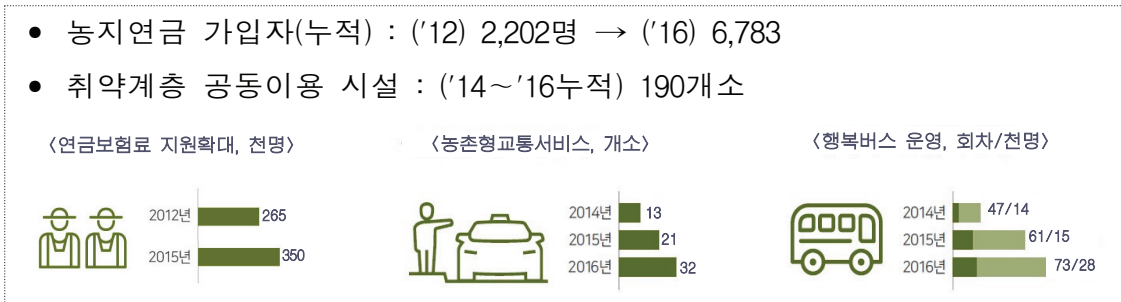
- (소득증대) 직불제 확충, 3차('15.1, '15.8, '16.1)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, 재해보험 내실화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

⇒ 농가소득 : ('12) 31,031천원 → ('15) 37,215

- 쌀고정직불금 : ('12) 70만원/ha → ('15) 100
- 이모작직불금 : ('14신설) 40만원/ha → ('15) 50
- 고정금리 : (시설자금) '15:3%→'16:2, (운전자금) '15:3%→'16:2.5
- 재해보험 대상품목/가입률 : ('12) 51개 품목/13.6% → ('16) 66/27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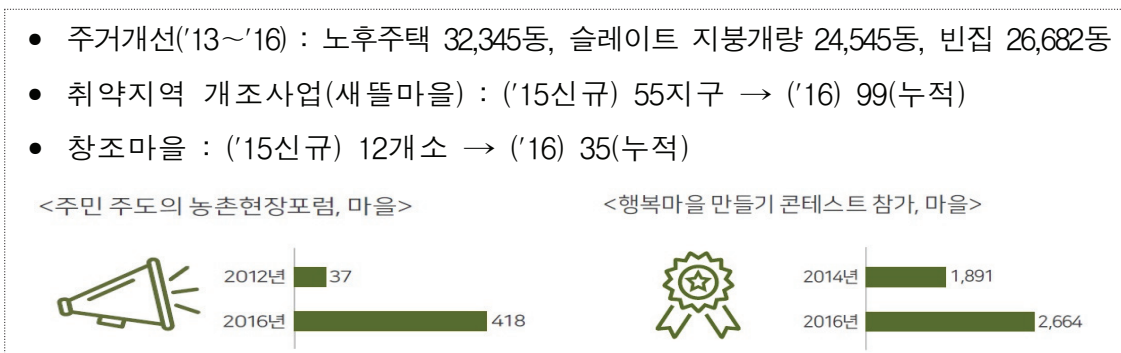
○ (복지증진)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,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

⇒ 농업인 복지 만족도 : ('12) 80.0점 → ('16) 87.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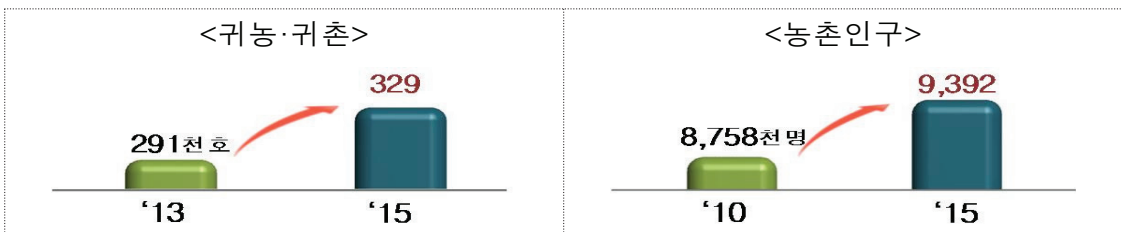
○ (정주여건 개선) 농촌마을 주거여건 개선, 읍·면 중심지 활성화, ICT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 개선

⇒ 농촌 기초인프라정비 만족도 : ('12) 79.9점 → ('16) 89.3



○ (귀농·귀촌 확대) 귀농·귀촌 가구수가 대폭 증대되어 농촌활력 제고

⇒ 귀농·귀촌 가구수 : ('13) 291천가구 → ('15) 329(40대 이하 64%)



### ③ 농정현안 해결

- **(쌀 관세화)**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('14)하여 수입량 추가 증량이 중단되고, 쌀 관세율 513% 설정 등 쌀 산업 보호장치 마련
- **(시장개방 대응)** 중국·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,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
  - \*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('FTA농어업법' 개정, '16.12.29일)

- 한중 FTA 체결시 초민감 및 민감품목 비중이 63.4%에 달하여 농업부문 최대한 보호
- 영연방 FTA 대책('14.9월), 한중 FTA 대책('15.6월) 등 수립

- **(유통개선)** 로컬푸드 직매장·공영홈쇼핑 등 온·오프라인 신유통 확대, 산지 조직화·규모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

⇒ **농산물 신유통경로 비중 : ('12) 8.4% → ('16p) 18**

⇒ **취급액 100억원 이상 대형 생산자 조직 : ('12) 42개소 → ('16p) 70**

- 로컬푸드 직매장 수/매출액 : ('12) 3개소/62억원 → ('16p) 148/2,530
-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: ('12) 1.1조원 → ('16p) 2.9
-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인·전문가 참여 수급조절위원회 설치('13)

- **(농협 사업구조개편)** '94년부터 논의해 온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완료('17.1.1)하여 농업인을 위한 '판매농협'으로의 구축기반 마련

-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문 적자구조 탈피(순이익 '11:△758억원 → '15:690)
- 농협의 책임판매 비중 : ('12) 15.0% → ('15) 18.9

#### 4 현장 중심 농정추진

○ (규제개선) 분기별 규제개선 현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농업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

⇒ '13~'16까지 6차산업화·식품산업 육성 등 총 838건 개선

- 식품 제조·가공시설 기준(식품위생법) 완화 조례·규칙 : ('13) 4개 시·군 → ('16) 144
- 하우스맥주 외부반출 허용('14.4월) 및 하우스 막걸리 제조면허 신설('16.2월)
-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('15.5월) : (기존) 제조자·우체국·aT·지자체 → (개선)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및 농협 쇼핑몰 추가
-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(연간 180억원 매출, 360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)

○ (데이터 활용) 농업경영체 DB를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, 경영체 DB와 사업간 연계('16:102개사업)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 강화

⇒ 농업경영체 DB 등록 농가 : ('12) 1,486천개소 → ('16) 1,624

- 국가동물방역시스템(KAHIS) 구축 및 축산차량 GPS 부착(48,450대)

- 과수화상병 발생('15)시 경영체DB를 활용, 행정·방제비용 절감(1,290억원)
- 경영체DB를 활용하여 '14년 직불금 부정집행(95억원) 및 면세유 부정수급(76억원)을 적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

○ (협업 강화) 관계부처·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정책효율성 제고

-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교통여건 개선 : (농식품부) 사업주관·계획수립, (국토부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도 개선, (지자체) 조례제정·세부계획 수립·안전관리, (농어촌희망재단) 사업공모·관리, (마을주민회) 운행계획 수립 및 운영
- 복지부 협업,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(20kg→10) 등

---

## 2. 보완할 사항

---

### ① 가축질병 대응, 쌀 수급안정, 청탁금지법 대응 등 당면현안 발생

- (가축질병) 백신 개선 등으로 구제역 발생은 감소했으나 철새 이동 시기 도래,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**고병원성 AI 지속 발생**
- (쌀 수급)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, 구곡 재고부담 및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 등으로 **쌀값 하락**
- (청탁금지법 대응) 청탁금지법 시행(9.28) 이후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**화훼·외식·한우산업 분야** 등에서 피해가 발생

### ② 수출확대, 6차산업화, 스마트팜 보급 등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

- (농식품 수출)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**국내 업체 중심의 지원, 연관산업과의 연계 부족**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에 한계
- (6차산업화) 개별 경영체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으나, **지역단위 확산**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는 **미흡**
- (스마트팜) 원예·축산분야 외 **타분야로의 성과 확산** 및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화를 위한 **기술개발·조직화 등 보완 필요**

### ③ 농촌활력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

- (농촌복지) 농촌의 급속한 **고령화·양극화**, **도농간 격차** 등이 지속되고 있어, 이에 대한 **다각적 정책 고려**가 필요
- (지역개발) 포괄보조 사업 배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,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**종합적 시각에서의 지역개발**은 **미흡**
- (신성장동력) **종자·생명산업, 도시농업**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하고, **4차산업혁명** 등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

## II. 2017년 농정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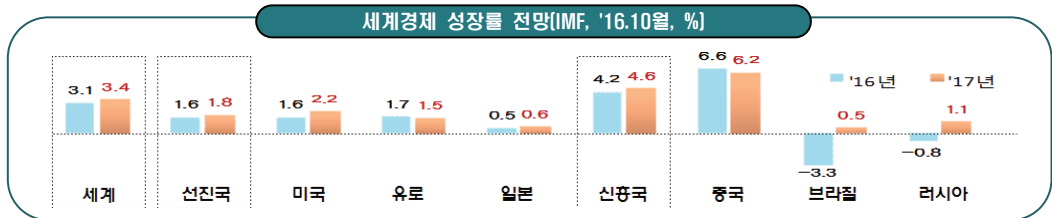


# 1. 농정 여건

## 가 국내외 경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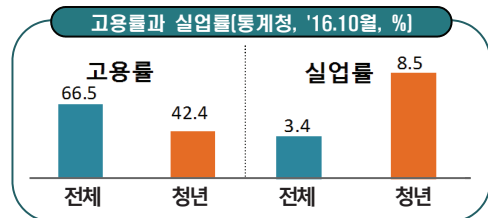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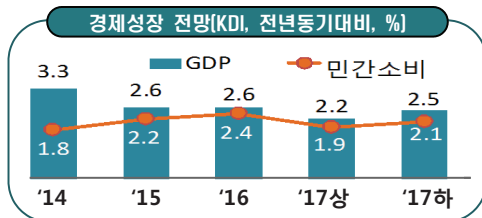
- (세계경제) 미국·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다, 美 추가 금리인상 등 변동성 확대 예상,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 등은 위험요인

\* 세계경제성장률(IMF, %) : ('00~'07 평균) 4.5 ('12~'15 평균) 3.4 ('16) 3.1 ('17<sup>o</sup>) 3.4



- (국내경제) 민간소비·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 둔화,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성장세 약화 전망

-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제조업·청년 고용 부진 등 고용창출력 둔화



## 나 농업·농촌 여건

- (대외여건) 한·중미 FTA 타결 등 대외개방 지속 확대(발효된 FTA 15건, 52개국/협상진행 5건)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나 농식품 수출기회로 활용 가능

- \* 우리 농식품 교역 중 78.0%가 FTA 체결국과 발생('15)
- \* '16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.9% 증가

- 곡물가는 하락세이나,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지속 예상

- \* 국제유가 전망(Brent유, \$/B, EIA) : ('15) 52.3 → ('16) 43.4 → ('17<sup>o</sup>) 50.9

□ (소비동향) 1인가구 증가로 소포장 식재료 및 외식 수요 확대, 학교급식 등 대량 구매처 증가 등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

\* 1인가구 비중 : ('00) 12.7% → ('05) 20.0 → ('10) 23.9 → ('15) 27.2 → ('35p) 34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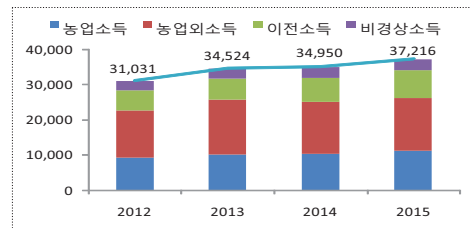
○ 쌀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반면, 유기농·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추세

\* 1인당 쌀소비량(kg) : ('10) 72.8 → ('12) 69.8 → ('14) 65.1 → ('15) 62.9

\* 친환경인증상품 매출액(유기농식품매장) : ('10) 7,544억원 → ('14) 12,582 → ('16p) 14,944

○ 농생명·바이오분야, 농기자재 등 새로운 수요 지속 확대

□ (농가경제) 농가 교역조건\*이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, 농외소득과 농업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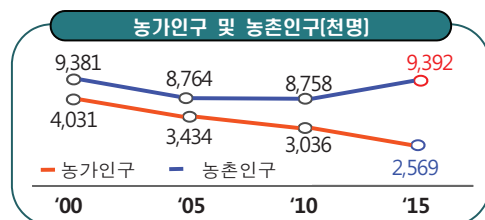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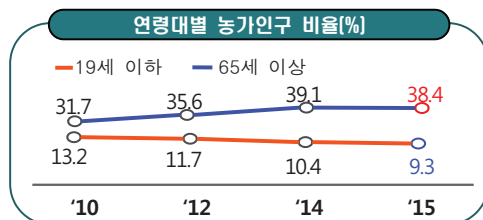
\* 농가 판매가격 지수/구입가격 지수('10년=100) : ('14) 111.3/108.4 → ('16.3분기) 107.3/109.9

○ 농업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, 기계화·자동화율의 증가로 생산성은 증대

\* 농림어업 취업자 수(천명) : ('10) 1,566 → ('13) 1,520 → ('15) 1,345

\* 노동생산성(농업부가가치/영농시간) : ('10) 15,698 → ('13) 16,119 → ('15) 19,497

□ (농촌여건)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나, 귀농·귀촌 증가 등으로 감소추세였던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전환



○ 도농 간 생활여건 격차가 여전히 크고 20호 이하 한계마을 증가

\* 상수도 보급률/도로포장률('14) : (전국) 96.1%/83.4, (농어촌지역) 69.1%/46.8

## 2. 2017년 농정 방향

### 기본 방향

- ◇ 시장개방 확대, 농업소득 정체,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·농촌의 도약기반 마련
  - 실행(Act), 신뢰(Believe), 배려(Care)의 ABC 농정을 통해,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, 새로운 미래 성장기반 확충
- ◇ 가축질병 발생, 쌀 공급과잉,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도모
  -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◇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,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
  -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하고,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
- ◇ 농업경쟁력 강화, 농업인 소득 증대, 농촌의 복지 증진 등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
  - 농식품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, 문화·전통·음식·공간 등 농촌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가치 증진
  - 전통적인 생산농업 중심에서 정보기술, 생명공학, 나노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외연 확대

## 정책 목표

**농업 경쟁력 강화, 농업인 소득 증대, 농촌 복지 증진**

## 중점 추진과제

###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

- ①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
- ② 가축질병 대응
- ③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
- ④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
- ⑤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###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

- ⑥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
- ⑦ 재해 대응력 제고
- ⑧ 농촌주민 복지 증진
- ⑨ 농업의 6차산업화

###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

- ⑩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
- ⑪ 농식품 수출 확대
- ⑫ 식품·외식산업 육성
- ⑬ 농생명산업 육성 및 R&D 강화

###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

- ⑭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- ⑮ 농촌 활력공간 조성 및 자원화
- ⑯ 귀농·귀촌 활성화
- ⑰ 현장과의 소통 강화

## ABC 농정 추진

실행농정(Act)

신뢰농정(Believe)

배려농정(Care)

## 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

-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유도 및 재고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,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을 유도하는 등 발작물 경쟁력 강화
-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, 향후 가축질병의 연례적 발생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지대책 수립·추진
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, 직거래 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
-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·유통·소비기반을 확충하고,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추진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신뢰 확보
- GAP·HACCP 인증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## ②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지속 확충

-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, 보험상품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
- 가뭄·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, 신품종·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·추진
- 영세·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,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직 출범 및 사업발굴 등 추진
- 6차산업 경영체 지원 고도화 및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, 서비스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

### ③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ICT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, 농가확산 및 관련산업 육성 지속 추진
- 중국 등 주요시장 집중공략 및 시장다변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하고, 농기자재·서비스·브랜드 등 연관산업 수출로 부가가치 창출
-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·유통 환경에 맞추어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화하고,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·전통식품 적극 육성
- 첨단기술 융합, R&D 투자 효율화 및 기술 사업화를 제고 등을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자·농생명소재·곤충 등 바이오산업 육성

### ④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

- 생산·유통·수출 등 농식품 전분야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적극 양성
- 농촌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(Design Agriculture)하고, 농촌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일터·삶터·쉼터로서의 복합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 창출
- 귀농·귀촌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고도화하고, 청년층에 대한 교육·정착 등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·농촌 활력 제고
- 농업인, 도시민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농정신뢰를 제고하고, 농업·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
## III. 주요 업무 추진 계획



# 1.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

## 1 |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

### 가 | '16년 주요 성과

-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'쌀 적정생산 운동' 전개,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 2만ha 및 생산량 13만톤 감축

  - \* 벼 재배면적 : ('15) 799천ha → ('16) 779(△2.6%, '11~'15년 평균 △1.6%)
  - \* 쌀 생산량 : ('15) 432.7만톤 → ('16) 419.7(△3%)
  - '16년산 쌀 초과공급량(299천톤) 격리 등 선제적 수확기 대책 실시
  
- 잡곡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'밭 식량산업 증장기 발전대책' 수립(6월)

  - \* 식량자급률 : ('13) 47.5% → ('14) 48.9 → ('15) 50.2
  - 겨울철 논 맥류·조사료 재배확대 및 두류 정부수매 확대, TRQ 증량 축소 등 수급안정장치 강화
    - \* 보리/밀 재배면적 : ('15) 34.2천ha/10.1천ha → ('16) 36.6/10.7
    - \* 정부수매 : ('15) 콩 20,000톤 → ('16) 콩 25,000, 팥 100, 녹두 50
    - \* 콩 TRQ 증량 물량 : ('14) 93천톤 → ('15) 79 → ('16) 59
  
- 국민불편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규제 완화

  - 3ha 이하 자투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·변경(10만ha)
  - 농업보호구역 내 6차산업화 시설 허용, 농지전용 허가시설 면적 상향 (종교·수련시설 1천㎡→3천, 운동시설 1천㎡→5천) 등 농지법령 개정
  
- 우리 기업의 중점 진출지역인 연해주 지역의 농업개발 촉진을 위한 한-러간 공동연구 추진 합의

  - \* 한-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(6월), 연해주 농업개발 워크숍 개최(9월) 및 종자등록절차 간소화 MOU 체결(10월) 등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쌀 적정생산·소비확대·재고감축을 추진하여, 수급균형 달성 도모
  - \* 벼 재배면적 : ('16) 779천ha → ('17) 744 → ('18) 711
  - \*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: ('15) 62.9kg → ('17목표) 60.7 (전망치 60.1)
  - \* 정부양곡 재고 : ('16) 170만톤 → ('17) 144 → ('18) 91
- ◆ 쌀작물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집중 육성·확산 등을 통해 쌀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
  - \* 쌀 공동경영체 : ('16) 15개 → ('17) 35 → ('20) 110
  - \* 잡곡 재배면적/생산량: ('15) 202천ha/570천톤 → ('16) 212/607 → ('17) 220/620
- ◆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합리화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모델 구축

### [쌀 수급균형]

- (생산감축) 공공비축미 매입, 농지은행, 들녘경영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'17년 벼 재배면적 감축(35천ha 목표) 추진
  -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계 사업, 농산시책 평가 등 추진 시 감축 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 반영

구 분	내 용
공공비축미	지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물량배정 시 반영
지자체	시·도별 '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' 수립 추진
들녘경영체	사업다각화 사업('17:25개)을 쌀 대체작물 생산기반에 우선 지원
간척지	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추가 할인(現 :수도작 대비 20%) 등
농지은행	가용농지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 또는 휴경하여 수급조절용으로 활용(농지매입비축사업 '16:1,386억원→'17:1,800)
조사료	사일리지 제조, 총체벼 수확 기계·장비 등 연계지원

- 수확기 작황예측에 따라 사료용벼 전환 등 사전 수급안정 조치 추진
-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·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

※ 식량정책과 유미선서기관 044-201-1815

□ **(재고관리)** 복지용·가공용·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(정부양곡 120만톤 판매) 하는 등 **재고관리 강화**(‘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재고 감축)

- **사료용쌀 공급 확대**(‘16:91천톤→‘17:470), **복지용쌀**은 공급가격 할인 및 포장방식 개선 등을 통해 **수요확대** 추진
- APTERR\*를 통한 **소규모**(1천톤 내외) **해외원조** 우선 추진, 향후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**식량원조협약(FAC)** 가입 논의 추진

\* 한중일·ASEAN 국가의 식량위기 등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(‘13년 창설)

□ **(수요창출)** 쌀의 **산업용 활용**체계 구축, **소비·식생활 트렌드**에 맞는 **제품 개발·지원** 및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소비감소율 완화 도모

- ‘라이스랩’(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 베드) 등 쌀 가공식품 **프랜차이즈** 창업 지원, 쌀 가공산업·쌀가루 **활성화 R&D** 추진
- 쌀의 **영양학적 가치·식단** 등 집중 홍보 및 **아침밥 먹기\*** 확산

\* ‘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’(직장인), ‘천원의 아침밥’(대학생 등)

- 쌀의 **고품질화** 등을 위해 쌀 등급표시 중 ‘**미검사**’ 항목 **삭제**(10월 시행)

**[발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]**

□ **주산지 중심의 발작물 공동경영체를 확대**(35개소, 누적)하여, **조직화·규모화**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유통·수급조절 기능 **확충**

- 발작물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**발기반 정비** 추진

\* 지특회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발 공동경영체 연계 사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(4월)

- 발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대상자의 **유형별 특성**에 따라 산지유통 시설·ICT융복합 등 **맞춤형 패키지 지원** 시범 추진(2개소)

※ 유통정책과 이행은사무관 044-201-2219

- 'GIS 기반 주산지 정보시스템\*'을 구축(12월)하여 생산·유통 정보를 자율적 사전 수급조절 등에 활용

\* 주산지의 주요 정보(수자원, 농기계, 가공유통시설)를 주산지 지도에 표시하고, 재배단계별 모니터링 정보, 기후정보, 생산 예측량 정보와 연계

## □ 콩·팥 등 주요 잡곡류 생산 및 수요 기반 확충

- 우수 품종 개발·보급 확대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

\* 기계화 적성 품종 개발 : ('15) 5품종 → ('17) 9

\* 밭농업 기계화율 : ('15) 56.3% → ('20) 70

- 잡곡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거점 공유통종합처리장(SPC, 3개소) 운영
- 두류 정부수매 확대(콩 25,000톤, 팥 200, 녹두 100), TRQ 증량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 구축

- 국산 팥 보급증 시범 공급, 계약재배 활성화 등 식품업체와 산지 농협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팥의 수요 확보

- 자조금 도입 품목 확대\* 및 국산 잡곡류의 우수성 홍보 추진

\* (밀) 임의자조금→의무자조금으로 전환, (콩·감자·고구마) 임의자조금 조성 준비

## [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농업개발]

- 해외농업개발 성과창출을 위해 연관산업(농기계·농자재 등) 동반진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거점지역 전략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도출

- 곡물유통 종합상사 등 유통형 해외곡물확보 지원, 지원 대상 선정시 국내 반입실적을 반영하고 관세혜택(할당관세 활용) 등 제공

※ 국제협력총괄과 박봉수사무관 044-201-2040

- (러시아) 한-러 농업협력위 및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
- (인도네시아) 머라우께 지역 개발관련 협의(상반기), 고위급 정책협의(하반기),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조사(12월) 등을 통해 진출 적극 추진
  - \* ODA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농기계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

## [농지이용 효율화]

-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합리화, 진흥지역 지속 정비 등을 통해 농지의 보전과 이용 정책의 균형 모색
  - (진흥지역內)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·감면대상 등 제도개선\* 및 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쌀·밭 직불금 우대지원 확대 추진
    - \*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및 단위면적당 상한액 상향, 감면대상비율 축소 등
    -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 정비체계 구축(12월)
  - (진흥지역外) 전용허가 제한면적 조정 등 규제완화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실태파악(9월) 후 활용방안 강구
  - 임차농 보호제도 강화 및 합법적 임대사유 조정 등 농지 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(6월)
- 농지은행은 비축기능, 장기임대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(3월)
  - 기존 매매 사업 중심에서 임대차 중심으로 농지 규모화 사업 전환\* 및 농지매입비축 사업 물량 확대('16:770ha → '17:1,000)
    - \* 매매/임대차 : ('16) 1,217ha/1,800 → ('17) 600/3,357
    - 매입한 우량농지는 전업농, 2030세대,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
  - 농지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포털 고도화 지속 추진

※ 농지과 박경희서기관 044-201-1735

## 2

## 가축질병 대응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등 방역체계 개선, 초동대응 강화 및 권역별 방역관리 등으로 구제역 발생 최소화

\* 구제역 발생/재정소요 : ('14~'15) 188건/655억원 → ('16) 21/59

- 백신접종 취약농가 집중관리를 위해 백신관리 경보시스템 도입(6월),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\*(8월)

\* (기존) 메리얼(영국) → (추가) 아리아(러시아), 바이오제네시스(아르헨티나)

- 미래부, KT와 공동으로 KAHIS 축산차량 이동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동물질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(3월)

#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, 향후 가축질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

### [AI 조기 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]

- AI 전파 차단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

- AI 발생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조체계 강화

\* 방역시스템 점검(안전처), 철새예찰 정보 공유(환경부), 인체감염 예방조치(질병관리본부), 대국민 홍보(문체부),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(국방부) 등

※ 방역관리과 김상현사무관 044-201-2315

- 전국 모든 시·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, 전국 주요도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
  - \* 가금류 운반차량 세척·소독 적정여부 점검 및 1일 1농장 방문 확인, 종이 난좌 및 병아리 분양박스 재사용 금지, 식용란 운반 나무판자 소독
-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실시, 발생농장은 24시간 내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실시\*
  - \* AI 기동방역타격대, 농림공직자 살처분 지원단(1,797명) 운영
-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신속지원을 통해 농가경영 조기 안정 도모
- 환경부 등과 협조하여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매몰지에 대한 동절기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꼼꼼한 사후관리
- 근본적인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‘가축방역 선진화 종합계획’ 수립 (4월,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)
  - \* 방역제도 개선 T/F 운영 중('16.12.15일부터)
- (추진체계) 방역인력 보강 등 현장중심 방역체계 강화, 바이러스 특성별 대응 매뉴얼 개발 등
- (예찰체계 정비) 평시 예찰방식 개선, 조기 신고체계 구축 등
- (농가 책임방역) 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,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 유도
- (기술개발) 소독제 효능평가 강화, AI 신속진단 간이키트 개발 등

## [구제역 및 기타질병 방역관리 강화]

### □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상시 방역관리 강화

- 지역 전담관을 지정(2,003명)하여 취약농장\*에 대한 관리 강화

\* 과거 발생농장, 백신 항체형성률 저조, 밀집사육단지, 한센인 정착촌 등

-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통해 집중 미흡농가를 선별하여 백신 추가 접종 및 검사 실시(항체형성률 저조 시 과태료 부과)

- 돼지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실태 정기 평가(반기별 1회)

\* 계열화사업자 운영자금 등 차등지원,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

- 농가에 질병·사양관리 등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

\* (기존) 전화예찰 중심 → (개선) 질병·사양관리 종합 상담

### □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 병, 돼지열병 등 기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

- 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소는 결핵병을 의무적으로 검사,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젖소(35만마리)는 전수 정기검사 실시

- 거세수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감염실태 모니터링(8,620마리, '16.12월 ~'17.3월),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원(2,500만마리) 등 예방관리 강화

### □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 활용도 제고

- 가금류 생산·유통 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및 방역본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주기 단축\* 추진

\* (현행) 분기별 조사 → (개선) 품종(종계·산란계·오리 등) 특성을 반영하여 주기 설정

- 방역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 모형\*의 현장 적용성 강화

\*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의 현장 적용도 제고 지속 추진

※ 방역총괄과 정승교사무관 044-201-2358

### 3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

#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□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**화훼·외식분야 등에서 피해가 발생\***하고 있어, **소비위축 방지**를 위한 **다양한 홍보·판촉** 등 추진

\* (화훼) 소매 거래금액 전년대비 27.4%↓, (외식) 매출액 24.9%↓ 종사자 3.3만명 ↓, (한우) 정육점 매출액 15.5%↓ 등

○ **(화훼)** 가정·사무실 등에서의 **생활용 꽃소비 확대**를 위한 홍보 강화

\* 기업·소비자단체와 꽃 생활화 MOU(10월), GS슈퍼마켓 내 꽃 판매(30개소, 12월) 등

○ **(과수)** 소포장 제품 등 다양한 **제품개발, 판촉행사** 등 소비 진작 유도

\*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개발, 하나로마트·대형유통업체·공영홈쇼핑 판촉행사(14백톤, 12월) 등

○ **(한우)** **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 개최(11.26~12.3), 할인행사** 추진

□ 로컬푸드 직매장('15:103개소→'16:148), **공영홈쇼핑\*** 등 **신유통경로** 지속 확대로 **유통비용 절감**(유통비용 절감액 '15:7,491→'16p:8,585)

\* 수수료(공영홈쇼핑23%/타홈쇼핑34%) 부담 완화로 농가 비용 약 213억원 절감

□ 주요 품목의 **생산예측 모형개선, CCTV·드론\*** 등을 활용한 **산지 수집정보 강화** 등 **농업관측 고도화** 기반 마련

\* 고랭지배추(강릉 안반데기, 태백 매봉산 등) 생육 상황 파악을 위해 드론 활용(3대)

□ 도매시장 내 **가격변동 최소화**를 위해 **정가·수의매매를 활성화**하고, **최소출하단위 사업 품목 확대(3월)\*** 등 **도매시장 운영 효율화**

\* 대상품목 : ('15) 포도·배·감자 등 6품목 → ('16) 토마토·사과·오이 등 15품목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**농업관측의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, 생산안정제 확대 등 자율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**
- ◆ **온·오프라인 직거래 지원 강화로 농산물 신유통경로 비중을 확대하고, 도매시장 정가·수의매매 정착**
  - \* 신유통경로 비중 : ('16) 18.4% → ('17) 20.0

### [생산자조직 판매기능 강화 및 산지 교섭력 제고]

- **현재 임의자조금 조직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('16:2개→'17:10)하여,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**
  - 대표성이 확보된 임의자조금 품목(파프리카·사과·배 등)을 중심으로 **농가조직화 교육, 의무자조금 필요성 홍보** 등 추진
    - \* 농진청 실용화교육(시군기술센터, 2천여명 대상),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집합교육(1월, 150여명), 지역농협담당자 교육(2~3월, 900여명) 등
  - 의무자조금단체에 **자율적 생산·유통 조절권한을 부여**하고,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**정책 우선지원 근거 신설**(농수산자조금법 개정, '17.하)
- **통합마케팅조직 체계로 산지유통을 계열화하여 생산자 거래교섭력 제고**
  - \* 통합마케팅 비중(채소·과실류 생산액 13조원 대비) : ('16) 26% → ('17) 29
  - 산지조직 원물확보자금('17:3,600억원), 산지유통 시설지원('17:180억원) 등 **산지 관련 사업을 계열화 참여조직 중심으로 지원**
  - 계열화 촉진을 위해 **통합마케팅조직 단위의 지원체계\*** 구축
    - \* 통합마케팅조직(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참여조직(지역조합 등)의 사업수요를 취합·조정
- **농협법 개정('16.12월)을 계기로 농협의 산지조직화 및 판매유통기능 강화**
  - **생산자조직 확대\***, **연합사업조직(103개) 기능 강화** 등 산지조직 육성
    - \* 생산자조직(공선출하회·생산자협의회) : ('16) 2,150개소 → ('17) 2,300
  - **경제사업 활성화 등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**
    - \*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제명요건 신설 및 상임감사 도입 근거 마련 등

\* 유통정책과 서영주서기관 044-201-2228

## [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직거래 등 신유통 확산]

### 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\*를 지속 추진하고, 정가·수의매매 내실화

\* 가락시장 기본설계(1월부터), 수원시장 시설현대화 착공(8월) 등

- 정가·수의매매 중점 관리품목을 신규 설정(10개)·관리하고 ‘예약 거래시스템’을 활성화\*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

\* 유통관계자 시스템 활용 현장교육 실시, 시스템 이용 Help-Desk 운영 등

- 최소 출하단위 설정\* 및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,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(농안법 개정, 9월) 등 경매사 역량강화 추진

\* 대상 품목 : ('16) 토마토, 사과, 오이 등 15품목 → ('17) 양파, 당근, 총각무 등 19품목

### □ 도매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시스템 개선

- 가락시장 내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, 도매법인·중도매인간 경쟁 촉진

\*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담보를 개별법인 대신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제공하여 복수법인과와의 거래시 추가부담을 해소

- 대량수요자(대형유통업체·식자재업체 등)가 요청하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·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(6월)

### □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('16:148개소→'17:170), 공영홈쇼핑 지역 우수 농식품(6차산업·지리적표시 등) 고정 편성(50여회) 등 직거래 지속 확대

\* 지자체, 품목단체가 참여하는 ‘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추진단’ 운영

- 포스몰(POS-Mall)\*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 개발 및 구매회원 확대('16:20,040업체→'17:25,000)

\* 포스몰 : 소상공인의 포스(POS) 기계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(B2B) 플랫폼

- 대도시형 직매장\* 및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\*\* 설치 추진(각 1개소, 2분기)

\* 대도시형 직매장 : 특·광역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근 로컬푸드의 거점형 직매장

\*\*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: 지자체 주관, 도내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

※ 유통정책과 김재경사무관 044-201-2221

## [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]

### □ 기상대응 및 수급정보 관리 강화 등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

- 통합적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\* 구축(6월), 기상이변에 대응한 수급안정 매뉴얼 운용(1분기) 등 수급관리 기반 확충

\* 다양한 기관(aT·농진청·KREI·농협 등)의 수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

### □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여 농업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

- 농업총조사 결과 및 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관측표본을 재정비하고, 품목별 모형 개선(9월), 농업인을 활용한 관측리포터(50명) 운영 등 추진
- USN·드론(3기 추가 도입) 등 ICT 기술 활용 정보수집 강화

### □ 주산지 협의체(생산자·지자체·전문가 등 구성, 21개소) 중심으로 생산안정제 사업 확대\*, 비축물량 및 TRQ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

\* 품목 : ('16) 고랭지·겨울배추, 겨울무, 양파 → ('17) 배추·무(모든 작형), 양파, 마늘

\* 사업량 : ('16) 평년 생산량의 5% → ('17) 8%

#### <생산안정제 개요>

- 주요 품목 계약농가에 일정 소득\*을 보장하되, 생육단계 면적 조절, 출하명령 이행 등 수급의무(계약물량의 50%)를 부여하여 수급불안 완화
- \* 출하물량 일정 가격(평년의 80%)을 보장, 수급대책 참여 물량 소요비용(폐기비용) 등 지원

- 배추·무 상시비축(aT)을 확대\*하고, 산지 출하조절 시설(2,000톤) 등을 활용하여 수급조절 규모 확대

\* 상시비축 : ('16) 배추 2,600톤/월, 무 1,000톤/월 → ('17) 배추 3,500, 무 2,000

- 비축 농산물 시장 방출시 도매시장 뿐 아니라 실수요단체·소매상·재래시장·사이버몰 등에 직공급하여 가격안정 효과 제고

\* 안성물류센터 등 활용, 원물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가공·소포장 제품도 개발·공급

## [축산물 수급안정]

- 규모화·조직화 및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 도모
  - 축산물 패커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(4~6단계 → 2~3단계) 추진
    -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와 축산전문시장(마장동 등), 대형마트, 육가공업체 등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
  - 농협계통 직거래 정육식당 확대('16:434개소→'17:490)
  - 도축검사·등급판정 등 거래증명서류(9종)를 '거래정보통합증명서'로 간소화하여 유통 효율화 도모
-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중심의 민간 자율 수급관리 체계 정착
  - (한우) 간척지를 활용한 생산단지 조성, 가축시장 송아지 생산 예약거래제\* 도입 추진 등 송아지 생산기반 안정
    - \* 비육농가의 송아지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번식농가에 적정수준의 생산 위탁
    - 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한 중장기(4년) 수급관리 시스템 마련(9월)
  - (원유) 중복산정 항목 제거 등을 통해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
    - \* 물가상승률 이중계산 해소, 시장상황(재고물량 증감)을 반영한 기본가격 결정
    - 효율적인 원유 수급관리를 위해 원유거래 표준원칙\* 마련
      - \*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가격 통일, 집유주체의 임의적인 쿼터 증·감량 금지 등
  - (계란) 산란계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란 가공품 수입 및 국내 생산기반 회복 추진
    - 제과·제빵업체의 계란 수요를 수입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
      - \* 계란 가공품 수입 유도 방안: 할당관세(9.8만톤), 항공운송비 지원, 수입절차 간소화
    - 생산주령 연장(68주령→100), 산란계 조기공급 등 추진

※ 축산정책과 조재성사무관 044-201-2332

## <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추진방향 >

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등 다양한 상품개발, 유통구조 개선, 홍보·판촉 강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
- (화훼) 선물용 소비구조의 생활용 전환을 위해 유통전문점 꽃 판매 코너 확대(16:30개소→17:200), 꽃 생활화(1-Table 1-flower) 운동 등 추진
  - 화훼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\* 수립(3월)
  - \* 신품종육성·보급, 생산기반 확충, 유통구조개선,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 등
- (과수)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세척과일·신선편이 제품 등을 개발하고, 품종 다양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등 추진
  - 생산·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'5개년 과수산업발전계획' 수립(3월)
- (인삼) 명절·가족의 달 등 수요집중 시기에 홍보를 강화하고,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촉활동 추진\*
  - \* 국내 면세점 홍보(상반기), 중국 대형병원 내 고려인삼 라운지 개설(하반기) 등
- (한우) 직거래판매장 지원을 강화(14개소)하고, 가정간편식 등 실속형·소포장 제품 및 온라인 유통기술 개발 등 가정소비 확대 유도
  - \* '실속형 축산물 Best 10' 온라인 판매, 지역축제 연계 판촉, 소외계층 나눔행사
  - 지역축제 연계 소비촉진행사, 학교급식 맛체험, 소외계층 나눔행사 지원
- (외식) 외식소비 선진화 캠페인 추진 등 외식소비 확대를 유도하고,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\* 수립(3월)
  - \* 외식수요 창출, 경영개선, 공익기능 강화 등 외식산업의 지속적 성장 위한 세부계획 마련

## 4 |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

### 가 | '16년 주요 성과

- **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**(3월), 친환경 지구 조성('15:1,158개소 →'16:1,174) 등 **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충**
  - \*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/농가수 : ('15) 75,139ha/60,018호 → ('16) 79,458/61,940
- **의무자조금 도입**(7월), 재배기술 개발·보급\*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 강화
  - \* '찾아가는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 사업단' 구성 및 권역별 교육 실시(500여명)
- **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기반 확충**
  -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동물약품 사용기준 강화\*, 2개 이상 인증 신청 농가 중복심사 면제(10월)
    - \* (종전) 휴약기간 2배 준수 → (개선) 질병취약시기 외 항생제 등 사용금지
  -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개발(12월), 시범농장 맞춤형 컨설팅(17개소) 등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
- **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으로 분뇨 자원화율 제고**('15:90.2%→'16:90.6)
  - \*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: ('15) 79개소 → ('16) 84
  -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'광역 축산악취 개선 시범사업' 실시(5개소)
  - 지역단위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양성(20명) 및 GIS 기반 가축분뇨 정보(map) 서비스\* 시스템 구축(6월)
    - \* 지역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정보(발생량, 처리시설 등) 제공
  - 유관기관 간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
    - \* (농식품부) 시설 등 인프라 지원, (생산자단체) 악취 저감 자구노력, (축산 과학원·축산환경관리원·환경공단) 연구, 교육·컨설팅 등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### ◆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

\*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: ('16) 1.4조원 → ('17) 1.6

### ◆ 가축분뇨 정책을 자원화 중심에서 악취 저감 중심으로 전환하여, 깨끗한 축산농장 및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

\* (가칭)'Clean 농장' 500개소 지정

## [친환경 농업]

### □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및 친환경농업의 가치·현장 중심 홍보 강화

-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을 완료하고, 인증기관 평가·등급제 도입(6월)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
  -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, 벌꿀 등 식용 및 비식용 유기 가공품 인증·표시제도 도입(12월)
  -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안심유통 시스템\* 보급 확산('16:465개 매장→ '17:1,000) 및 영양사·유통사 MD 등 체험·교육 확대
- \*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(농관원)과 유통표준코드(대한상의)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 인증내역, 유통경로,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

### □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 다양화

- 지역 조합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
- \* 시·군별 농가조직화·역량강화, 공동 브랜드를 통한 판로개척, 안전성 관리 등 담당
- 생협·전문점 외 온라인몰 입점(50개 경영체 이상) 및 직거래 장터 개설(2개소), 기업과의 상생협력\* 등을 통한 신규 수요처 확보
- \*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 포인트 지급(농식품부-환경부-유통기업-카드사 협업) 및 롯데슈퍼-생산자단체 협업 판매 확대(매출액 '16:20억원→'17:40)

※ 친환경농업과 김지현사무관 044-201-2435

□ **친환경농업 지구 조성(신규 15개소) 및 자재·생산기술 등 지원 확대**

- 유기농업자재의 **관리 업무 일원화(1월)**, **공시·품질인증 제도 통합\***(6월) 및 **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추진**
  - \* 실효성이 낮은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, 공시 제품에 효능·효과 자율 표시
- 우리 실정에 맞는 **친환경 저투입 농법 개발\***·보급
  - \* 블루베리, 토마토, 딸기 등 품목별 표준 유기재배기술 개발

□ **친환경 가공식품 산업기반 확충 및 생산과 가공·외식·수출·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수요 창출**

- 친환경 가공 활성화를 위한 **무농약 가공식품 표시·인증제도 도입(12월)**
- 유기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**원료 주산지**와 연계한 **기반 조성\*** 및 **일본·캐나다 등 수출 유망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 추진**
  - \* 녹차 주산지(경남 하동), 생산자단체, 수출기업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(상반기)

**[친환경 축산업]**

□ **환경친화 축산 농장\*을 모델로 한 ‘깨끗한 축산농장’ 조성을 확대 하는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 추진**

- \*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
- **환경친화축산농장 등급화 추진**(깨끗한 축산농장 개념 신설)
  - \* (현행) 단일 기준(19개) → (개선) A, B, C등급로 세분화
- **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(상반기)\***하고, **축사시설현대화 지원** 등을 통한 **축사 신축·개보수 시 축산환경 전문가 컨설팅 의무화**
  - \* 신규로 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으려는 농가는 분뇨처리시설 허가 의무
- **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(‘16:20명→’17:60)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**
  - **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‘축산환경기사’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(축산법 개정)**

※ 친환경축산팀 김지현서기관 044-201-2382

- 축산악취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**지자체별로**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시설 등을 고려한 **'가축분뇨 처리 최적화 전략'** 수립(6월)
  - **공동자원화시설**(농식품부)과 **공공처리시설**(환경부) 간 **연계 강화**
    - \* 연계 처리시 정화처리 부하 경감(BOD 농도 2만ppm→1만 이하)
- **'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'** 추진(3개소) 등 **축산악취 집중 관리**
  -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**가축분뇨 수거 시스템 구축**(2개소), **축사 내부 등에 쌓인 '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'** 추진(2개소)
  - 축산환경관리원 내 **'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'**를 설치하고, 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에 **'현장 출동 냄새 해결 전담반'** 구성·운영(10개소)
- **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·액비 품질 향상** 등을 통해 **수요처 확충**
  - 퇴·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**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**(현재:84.5%) 및 액비의 **유기농 자재 인증** 추진
  - 퇴·액비 수요처를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**시설 원예 등으로 확산**
- **산지생태 축산 표준모델 확산 및 방목기준 신설 등 활성화 기반 마련**
  - 3개 축종(한우·젓소·염소) **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전국 확산**
    - 시범농장을 **지정농장으로 전환**(28개소)하여 집중 육성\*하고,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참여를 유도하여 **신규농장 조성 지원\*\***
      - \* 초지조성/사양관리/자원순환/6차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연중 지원
      - \*\* 국·공유림 활용 초지조성 시 법정 부담금 등 지원(7백만원/ha)
  - **산지생태축산물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최소 방목기준\*** 등 설정(3월)
    - \* 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방목초지 확보, 최소 방목사육 기간 등 제시
  - **친환경·산지생태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**(연중)
    - \* 온라인 홍보·판매관(오픈마켓) 운영, 대형할인매장 연계 판촉행사 등

## 5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#### □ GAP 생산기반 조성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해 인증농가 증가

\* GAP 인증농가수 : ('15) 554천호 → ('16.11월말) 739

- 주산지 토양·용수 안전성 분석\*, GAP 시설 개·보수 지원(53개소) 등을 통해 농업인 인증부담 완화

\* 135개 지자체 참여, 전체 경지면적의 6.7%에 대해 토양·용수 분석 추진

- 급식업체, 유통업체 등의 GAP 농산물 판로 확대\* 및 GAP 전용관(2개소) 설치를 통해 매출액 증대('15:146억원→'16:909)

\* 매입액/품목수('16) : (아워홈) 10억원/5개 품목 / (ECMD) 40/36

#### □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

- 부적합 발생 20개 품목(엽경채류 등) 집중 관리 및 김장철·명절 등 특별조사(12천건)를 추진하고, 로컬푸드 등 소비자 관심 분야 조사 확대

\* 생산단계 잔류농약조사 부적합률: ('15) 3.8% → ('16.10월말) 3.1

-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, 계약재배 농가 대상 안전관리 강화

\* 납품업체 513개소 및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325농가를 점검하여, 축산물 이력 위반(3건), 친환경 거짓표시(4), 잔류농약 부적합(2) 등 적발

#### □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재발방지 체계 구축

-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(16개→20)하고, 표시판 크기 확대(A4→A3, 2월), 배달앱 원산지표시 방법 구체화 등 실시

- 부정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재범자 형량하한제\*, 위반자 의무교육 도입

\* 거짓표시 처벌 후 5년 이내 거짓표시로 재적발 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등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◆ GAP·HACCP 인증 확대, 원산지표시 위반 관리 강화, 농가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

\* GAP 인증 목표 : ('16) 6.3% → ('17) 7.4

### [GAP · HACCP 인증 확대]

□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생산·유통·홍보 등 분야별 지원 강화

○ 대형 유통업체(롯데마트 등) 취급 농산물 자체 품질기준으로 GAP를 포함하고, 농협 아침마루판매관 내 GAP 제품 입점(5개소, 상반기)

○ 품목별 주산지, 발작물공동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GAP 토양·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을 통해 '토양·용수분석 Free Zone\*' 조성

\* 토양·용수 분석 없이도 GAP 인증이 가능한 농경지('18년까지 전 농지의 27%)

- 토양·용수 분석 지원을 받은 지역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\*을 연계 지원(55백농가)하여 집단 인증 유도

\* 절차 안내, 위해요소 관리 교육 등 GAP 인증 시 농가애로 해소

○ 생산자단체·영양사(자발적 학습조직 운영), 유통업체(MD대상 교육)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GAP 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

□ HACCP 운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○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도축장·집유장 등 HACCP 운용 베스트 작업장을 선정(4분기)·홍보

○ 도축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HACCP 자율평가제(연 2회) 활성화를 위해 현장기술 지원 등 피드백 강화

## [농산물 안전관리 강화]

- 농산물 안전성 기준의 자발적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 - 안전성 기준을 상습적(최근 3년 내 2회 이상)으로 위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심사시 **패널티 부여**(고용부 협업, 12월)
  - 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농가의 안전성 기준 준수 의무 신설 검토
  - 민·관 협업을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·전파(10월)
-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\*('18년 본격적용)에 따른 농약등록 및 기준 설정 확대, 현장 교육·홍보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·추진(농진청·식약처 협업)
  - \*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용(0.01mg/kg)하여 관리
  -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 대상 교육·홍보 실시
    - 우선 적용('16.12.31)되는 농산물(참깨·참다래·망고 등) 재배농가 대상 온·오프라인 교육·홍보(1분기) 등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
    - 전면 도입('18년) 대비 농업인·농약판매상·농협 등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·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교육·홍보 실시
  - 현장 수요\*를 반영한 농약 등록 및 기준 설정,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기(연2회→4) 확대 등 추진(농진청·식약처 협업, 12월)
    - \* 안전성 조사('13~'15) 및 농약현장사용실태조사('16.10월) 기 추진
- 원산지 표시 개정내용\*에 대한 교육·홍보 등을 통해 표시대상 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
  - \*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(16개→20), 표시판 크기 변경(A4→A3) 등
  - 위반자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(5월)하고, 홈쇼핑 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도 원산지 관리 의무를 부과(12월)하는 등 실효성 확보

※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승일사무관 044-201-2280

## 2.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

### 1 |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

#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직불제 확충 및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·경영 안정 기여
  - 쌀 변동 및 고정 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목표가격 대비 97% 수준까지 보전
  - 쌀 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및 지원단가 인상\*으로 농가소득 지지  
\* ('15) 26개 품목 40만원/ha, 그 외 25만원 → ('16) 전품목 40만원
  - 농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('15:3개품목/14개시·군 → '16:4/22)
  -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하고, 유관기관(국세청·국토부·지자체 등) 협업을 통해 직불금 적격여부 검증 강화
- 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(KREI, 4~12월)하고 전문가·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(직불제 정책포럼 4회, 실무TF 운영 등)
-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금리 인하(2.5%→2.0, 1월)로 농가부담 완화  
\* 원예시설 현대화, 농업종합자금 등 수요가 많은 16개 사업
- 국세·지방세의 비과세·감면제도 유지 및 개선
  - '15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(10건) 및 지방세(15) 세제혜택 연장(1월)  
\* (국세) 농업용 면세유, 농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제도 지속(3년)으로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  
\* (지방세)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농지연금 사업 농지 재산세 면제 등 제도 지속(1~3년)으로 연 25백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
  -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(5억원→15)하고,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품목 4종 추가(52종→56, 2월)

**나 '17년 추진계획**

- ◆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
- ◆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위험 최소화

**[직불제 개편]**

- 직불제 도입이 20여년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·농촌의 변화를 반영하고,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
  - 농식품부 연구용역('16.4~12월, KREI)과 기재부 심층평가('16.5~'17.2월, 서울대)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개편방향 수립

**<중장기 개편방향(안)>**

- 쌀·밭·조건불리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구조를 단순화
- 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, 소득보전 중심에서 경영안정으로 전환
- 수급농가의 준수 의무 및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직불제의 신뢰성·공감대 확보
- 지급기준 및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 농가간 형평성 제고

- 농가소득안정심의회,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, 직불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(6월)
  - 공익형 직불제(경관·조건불리 등)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, 쌀 직불 개편은 쌀 수급 안정 등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
- 농업인이 직불제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강화

※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기환사무관 044-201-1772

- **밭·조건불리 직불금 단가인상\***,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('16:4개→ '17:6) 등을 통해 **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**
  - \* 받고정 직불금 지원단가 : ('16) 40만원/ha → ('17) 45
  - \*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단가 : ('16) 농지50만원/ha·초지25 → ('17) 55·30
- 경영체 DB, 스마트팜맵, 드론 등 **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점검 추진**

## [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]

- **금리 인상기조에 따른 농가 리스크 최소화**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
  -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**농가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농가 설명 및 홍보 강화**
  - **재해복구비용 긴급지원금 무이자 지원**(현행 1.5%) 추진
  - **농신보 부분보증비율 및 전액보증한도 상향 추진**(상반기)
    - \* 부분보증비율 : (현행) 80~85% → (개선) 85~90
    - \* 전액보증한도 : (현행) 2천만원 → (개선) 3
- **비과세·감면 규정의 일몰을 연장**하고, 세제 개편 방안 마련 추진
  - '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**18건의 세금 감면 규정 유효기간 연장**을 위해 기재부·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(3월부터)
    - \*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100% 감면,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,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비과세, 농협 법인세 저율과세,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
  - 변화하고 있는 영농여건과 농정방향을 감안해 **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정책효과성 제고**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

※ 농업금융정책과 김경은사무관 044-201-1760

## 2 | 재해 대응력 제고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보장수준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\*

  - \* 농작물 : ('15) 21.8% → ('16.11월) 27.4, 가축 : ('15) 90.7 → ('16.11월) 92.6
  - \* 벼 보험 가입면적 전년대비 80% 증가('15:137천ha→'16:247천)
- 지원대상 품목 확대('15:62개→'16:66), 종합위험보장 적용 확대(3개→4), 손해율별 할인폭 확대(25%→△30) 및 할증폭 축소(40%→30) 등
-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\*, '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' 시행(1월) 등을 통해 안전재해에 대한 보호 강화

  - \* 유족급여금 : ('14) 1억원 → ('15) 1.1 → ('16) 1.2
-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용수확보 및 홍수·지진 등 재해대응을 위한 수리시설 보수·보강 추진

  - 봄가뭄 대비 저수지·양수장 등 수리시설 보강과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업용수 공급('공주보-예당지', '상주보-덕가지' 하천수 활용사업) 추진
    - \* 농업용수 저수율 : ('15.9월) 41% → ('16.5월) 87 (46%p ↑)
  - 지진 등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D등급 이하 저수지 개보수 추진
    - \* D등급 이하 1,115개소 중 646개소(58%) 개보수 완료
- 과수화상병,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 기관간 협업 및 적기 공동방제(130개시군, 646백ha)로 피해 최소화

  - \* 과수화상병 발생 : ('15) 47농가/43ha → ('16) 17/15
- 식물병해충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찰·방제체계 개선

  - \* (농가의무 강화) 병해충 발생신고 의무 부과, (지자체 역할 강화) 정부 합동평가 지표 반영, (중앙통제체계 구축) 방제팀 신설안 확정, (종합개선방안 마련)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현장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선 등 재해대비 안정영농 기반 확충
- ◆ 가뭄·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, 기후변화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

### [농업재해 대응력 제고]

#### □ 재해보험 확충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의 대응력 제고

-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  - \* 대상품목 : ('16) 66개 품목 → ('17) 69(유자·무화과·시설썩갓 추가)
  - 과수(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·감귤) 보상재해에 일소피해를 추가하고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선(감귤 피해산출방식 개선 등) 추진
- 국가 재난정보 시스템(NDMS, 국민안전처)을 농업경영체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해예방 및 보상업무의 효율성 제고
  - \* 실 경작자 및 경작중인 농작물 실시간 확인, 지역·농가별 재해통계 추적
- 손해평가 인력운용 개선 및 객관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'손해평가사' 중심의 손해평가체계 구축
  - \* '15년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, '20년까지 2천명 육성 계획('16년까지 597명 확보)

#### □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만족도 제고

- 생존보장 선호가 높은 점을 감안, 유족보상금(5천만원→3천)을 줄이고, 휴업(입원)급여(2만원→3.5)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(30만원→50) 인상
- 농기계보험에 기존 자기신체 손해 보상 외에 위자료·휴업손해·장애 보상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 신설 추진

#### □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보험기금의 안정성 강화(1분기)

- \* (기존:초과손해율방식) 일정손해율(150~180%) 초과시 국가가 전부 책임 → (개선:손익분담방식) 이익·손해 공유

※ 재해보험정책과 오재협사무관 044-201-1728

## [기후변화 대응 및 가뭄·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]

-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,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력 제고
  - 열대·아열대 작물의 권역별 적응성 검정 및 농가실증 연구, 신기술 적기 보급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 등 추진
    - \* 신품종 개발(누적) : ('14) 159품종 → ('15) 198 → ('17) 228
    - \*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지원부서 신설
  - 최근 기상자료(적설심·풍속 등)를 반영하여 내재해 시설기준 보완
-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및 작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,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(4월)
  -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('14~'16 시범운영 중)하여 재배 품종·생육단계에 따른 선제적 재해 예측 및 대응 유도
  -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생산정보를 관측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추진('16:배추→'17:양파 추가)
- 농업가뭄 예·경보를 통해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고, 가뭄 상습지역 용수개발을 추진하여 안전영농 기반 확충
  - 매월 가뭄상황 및 전망(1·3개월 예보)을 발표하고, 필요시 긴급 용수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 - 농촌용수개발(76지구), 이용체계재편\* (6지구) 등 용수확보 능력 강화, 제주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추진(14억원)
    - \* 지역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자원에 여유가 있는 수리시설의 용수를 부족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망 구축

※ 창조농식품정책과 김화태사무관 044-201-2423

□ 농업용 저수지 내진능력 보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수질 보전·관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 수질개선 추진

○ 기존 50만톤 이상인 내진보강 대상기준을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,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저수지 보강 추진

\* 보강대상 저수지 : (현재) 601개소 → (개선) 1,228

○ 지자체·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를 강화\*하고, 지역주도의 자발적 수질 보전·관리 체계 마련(우심지역 67개소)

\* 수질오염유발 가능 저수지는 상류 유입부에 오염물질 차단·침전시설 설치 등

### [식물병해충 대응 강화]

□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예방 및 조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 방제대책 수립·시행

○ 국가단위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통합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(12월)\*, 식물병해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(10월) 등 추진

\* 검역본부(외래병해충), 농진청(농작물병해충) 및 산림청(산림병해충)이 운영 중인 예찰·방제시스템 간 연계방안 등

○ 양청, 지자체,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및 적기 공동방제 추진을 통해 방제효과 극대화

□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과실파리 등 병해충 예찰·방제 기술 연구 및 외래병해충 발생실태 모니터링 추진

□ 식물병해충 예찰·방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 마련(상반기)

○ 중앙정부 차원의 예찰·방제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 등 추진

※ 검역정책과 김중원사무관 044-201-2074

### 3 | 농촌주민 복지증진

#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농촌주민 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
  - 40개 읍·면 20천명에게 밀반찬배달, 이동식 목욕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
  - 농업안전보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(7개 마을), 무료건강검진 실시(100개 마을 42백명)
  - 행복나눔이\* (1만명), 복지달력(39천부), 농촌복지가이드북(500부) 등 생활 밀착형 전달수단 활용 복지정보 제공
    - \* 독거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과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지역농협 단위 주부모임
  
- 사회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제도 시행 등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
  -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\*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72천명 불편해소 및 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
    - \* 경영체등록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연계로 제출서류 없이 농업인 자격 증빙
  - 이자율인하(2.5%→2) 등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전년대비 27% 증가
  -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연령제한(80세 이하 농업인) 폐지 등 지원범위 확대
  
- '제4차('16~'20)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'을 수립하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근거 마련(3월), '농업인력포털'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교육정보 통합 제공(11월) 등

□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농업계·학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정책연구(KREI, 3~6월)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완료\*

\* 「FTA 농어업법」, 「상생협력법」은 각각 국회 본회의 의결('16.12.29)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국회 본회의 의결('16.12.2) 후 '17.1.1 시행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화, 의료·문화·교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◆ 여성농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
- ◆ 농어촌 상생기금이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
### [영세·고령농, 여성농업인 등 맞춤형 복지 강화]

□ 국민연금·농지연금 제도개선 등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 추진

-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\*(복지부 협업,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) 등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\*\*

\* (현재)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지원 제외 → (개선) 과세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지원(예:과세소득 25백만원 미만 포함 등)

\*\*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인원 : ('16) 390천명 → ('17) 400

-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\* 등을 통해 가입확대 유도('16:6,783건→'20:2만건)

\* 경영이양형 상품의 기간확정시 농지매도 조건으로 월지급금 상향, 가입초기 10년간은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 등 검토

□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체감도 제고

- 전국 '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\*'의 맞춤형 복지 전달팀을 활용하여 영농도우미 등 농촌 복지사업 홍보 강화(복지부 협업)

\* '18년까지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달팀(3명 이상) 구성

- 농협과 협업을 통해 행복버스\*(16:28천명→17:30) 및 지역농협 행복모임센터\*\*(50개소→58)를 운영하는 등 방문형 복지서비스 확대

\* 의료·문화·복지 서비스를 농촌마을에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제공

\*\* 재가노인 복지서비스, 보육서비스, 세탁 지원 등 제공

- 창조마을 중심의 원격의료 확대(16:7개소→17:9), 보건소 농업인 질환 전문 치료시설 운영(복지부 협업) 등 농촌 의료 여건 개선

-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활용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확산 유도

□ 농업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(16:6종→17:9), 시·군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위원에 여성참여 확대(1명→2명 이상)

- 공동아이돌봄센터·주말돌봄방 등 농촌형 보육시설 확대(16:50개소→17:53), 이동식놀이교실에 다문화가정 모국언어발달 지원 놀이감·도서 등 제공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전국 217개소) 전문강사를 활용, 농촌 소규모 보육 시설을 통해 다문화 자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(여가부 협업)

□ 농고·농대 예비 창업농에게 장학금 우선 지원\*, 졸업 후 영농 실습 교육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장학사업과 후계인력 육성사업간 연계 강화

\* '영농창업특성화과정(농대)' 및 '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(농고)' 참여자 가점

## [농어촌 상생기금 운영]

- 한중 FTA 여야정 합의('15.11.30)에 따라 출범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을 위한 조직·인력 등 시스템 구축
  -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·운영하는 '상생기금 운영본부' 발족(1분기)
    - \* 기금 개시에 필요한 최소 인원(5인)으로 구성
    - 운영 초기에는 농촌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**관련기관(농협, 농촌사랑운동본부 등) 인력을 파견** 받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  - 상생기금을 매개로 **농협, 희망재단 등 관계기관 협의체**를 구축하여, 농업·농촌 지원활동 체계화 추진(3월)
    - 기존 농촌 지원사업과 **중복을 최소화**하고, 상생기금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**농촌 지원 총괄기구로 운영**
- 기금 사업이 기존의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업 발굴 추진
  - 정책연구(KREI) 및 농업계·학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**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기금 사업을 발굴·추진**하도록 지원

### <상생기금 사업 추진방안 구상(안)>

- ① **기금운영본부 기획 사업** : 운영본부가 기업·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일반 기부금을 받아 사업기획 및 운영
- ② **자율추진 사업** :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, 상생협력 본부는 기업별 지원사업 조율 및 수혜지역 안배 등 조정역할 수행
- ③ **공모 사업** : 농민단체, NGO, 지자체 등이 필요사업을 제안하고,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·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 진행

## 4 | 농업의 6차산업화

### 가 | '16년 주요 성과

- 6차산업 핵심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인증사업자가 확대('15:802개소 →'16:1,130)되고, 6차산업 성과가 지역단위로 확산
  - 창업부터 판로까지 단계별·맞춤형 지원을 통해 6차산업 창업(전년 대비 18.9% ↑) 및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(11.1% ↑)이 큰 폭으로 증가
    - \* 6차산업 창업자 수 : ('15) 472개소 → ('16) 561
  - 지역 전략품목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·가공·유통·관광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(20개소)
    - \* 우수사례 20개소 매출액/방문객 : ('15) 7,939억원/1,379만명 → ('16) 8,372/1,565
-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(70종),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및 교통·통역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해 농촌방문 관광객 증가
  - \* 농촌 관광지 내국인 방문객 984만명(14.2% ↑), 외국인 방문객 16.4만명(97.6% ↑)

### 나 | '17년 추진계획

- ◆ 창업·자금·판로 등 6차산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·보완하여 실질적인 6차산업 성과 창출
  - \* 6차산업 창업자 : ('16) 561개소 → ('17) 640
- ◆ 지역단위의 6차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
- ◆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고로 농촌관광의 가치를 높이고,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활력 창출
  - \* 방문객(전체/외국인) : ('16) 1,001만명/16.4만명 → ('17) 1,100/20

## [6차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]

### □ 창업지원, 컨설팅, 자금, 판로 등 6차산업 경영체 맞춤형 지원 내실화

- **농산물종합가공센터**를 확대('16:44개소→'17:69)하여 창·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**시설디렉토리 활용도 제고\***를 통해 초기 시설비용 부담 완화
  - \* 지역별 제조·가공·유통·저장시설 DB(4,825개)를 바탕으로 보유자·수요자 간 매칭
- **모태펀드**(500억원) 및 **시설·운영자금**(300억원) 창업자금 지속 지원
- 경영·마케팅·판로 등 **분야별 컨설팅 시스템을 개선\***(3월)하고, 6차산업 우수제품 **QR코드 시스템\*\*** 구축(상반기)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
  - \* 개선방향 : 대기업 퇴직자 활용, 기존 일회성 컨설팅 외에 상시 컨설팅 제도 도입 등
  - \*\* 해당 제품의 생산농가부터 원물, 가공법, 체험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 제공
- 수출사업과 연계한 **해외 안테나숍**(20개소) 및 **B2B매장**(6개소) 입점 지원, 원물·가공·체험이 결합된 **안테나숍 설치**(2개소) 등 판로지원 강화
  - **지역농협**(하나로마트·로컬푸드 직매장 등) 활용 안정적 **로컬유통망** 확충
-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해 생산관리지역, 보전산지 등에서 행위제한을 완화\*하는 '**농촌융복합시설제도**' 도입(상반기) 등 **규제 완화 지속 추진**
  - \* 음식점, 숙박·관광시설 등 설치 제한 완화 및 의제 제도 확대로 절차 간소화

### □ 우수사례 유형화 및 발전전략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6차산업 발전체계 구축

- 품목 인지도, 생산자 조직화 정도, 가공·유통·관광 기반 등을 기준으로 **발전단계를 구분\***하고 **단계별 육성 매뉴얼 마련**(3월)
  - \*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'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'으로 지정·관리하고 조직화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'6차산업화 지구'로 지정(신규 3개소)
- 공동제품 개발, 마케팅 등 **경영체간 공동사업**을 지원(25개소)하고 **지역농협**을 통한 지역 내 원물 공급체계 구축
  - \* 지역농협의 6차산업사업자 인증 확대('16:50개소→'17:70)

※ 농촌산업과 김정락 사무관 044-201-1582

## [농촌관광 활성화]

- **민관 협업 및 자원간 연계를 통해 매력있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**
  - 코레일·민간여행사와 협업을 통한 **패키지 관광상품**(15종) 및 '**팜(Farm)**' **활용 특수목적형 관광상품\***(5종) 신규 개발
    - \* 팜 관련 관광상품 : 팜파티, 팜핑, 팜세미나, 팜스쿨, 팜웨딩 등
  - 지역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**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**
    - \* 사례 : 강진의 120개 농가가 지역내 부존자원을 연계한 감성여행 프로그램 개발
  
- **등급평가 개선 및 편의성·접근성 제고 등 서비스 품질 지속 제고**
  - **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전체 체험·휴양마을로 확대**(‘16:450개소 → ‘17:전체)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자발적 품질개선 유도
    - 경관, 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**농촌민박 평가제도 개선**(7월)
  - 온라인 **예약·결제시스템 확대**(‘16:360개소 → ‘17:400), 농촌관광지에서 **포인트 적립·사용가능 신용카드 확대**(3개사 → 6) 등 소비자 편의 제고
    - 외국인 전용 **교통·통역**(영어·중국어·일어) 서비스 제공 확대(18개 코스 → 23)
  
- **우수 관광자원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다겟별 전략 홍보 강화**
  - 한국관광공사·네이버 등과 협력하여 **시기별·테마별 다양한 관광자원을 매달 선정하여 관련 정보 제공**
    - \* 다양한 고품질 농촌관광정보(15종) 및 계절·테마별 우수 자원 홍보 등
  - 유학생 **농촌관광 서포터즈**(60명) 등을 통해 **SNS 홍보**(웨이보·페이스북 등), **주한미군·대사관 등 대상 팸투어 개최**
    - \* 웰촌포털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(1월부터)

※ 농촌산업과 최춘태 사무관 044-201-1592

### 3.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

#### 1 | 농식품 수출 확대

##### 가 | '16년 주요 성과

□ 글로벌 경제 침체로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.9% 증가

\* 농식품 수출액 : ('15) 61.1억불 → ('16p) 64.7

○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(인증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) 개소(4월), UAE와의 할랄인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**할랄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**

\* 對GCC 수출 실적 : ('15) 3.8억불 → ('16p) 4.6(전년동기 대비 22.0% ↑)

□ **현지 판매망 구축, 통관·법률 등 컨설팅 서비스 확대**,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**수출 물류비 추가지원**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중국 청도물류기지와 공동물류센터(7개소) 연계 **콜드체인 구축**(5월)

\* (기존) 3~4곳 분산 → (개선) 통합 보관, 업체별 연 15~20백만원의 관리·운송비 절감

○ **현지 물류·법률·통관 등 전문기관**(18개국 75개 기관) 네트워크를 활용 (컨설팅 비용 지원)하는 등 **비관세장벽 애로 해소**

\* 대중국 포장·라벨링 불량 통관 거부 : ('14) 113건 → ('15) 26 → ('16.10월까지) 15

○ 해운사 물류난에 대응 미주·유럽노선 선박 **물류비 추가 지원**(표준 물류비의 10%→13)으로 수출업체 부담 경감

□ **중국 쌀·삼계탕, 베트남 딸기 등 8개국 14품목\***에 대한 검역협상 타결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**수출기반 확대**

\* (중국) 삼계탕·쌀·사료(발효대두박), (베트남) 딸기, (인도) 사과·배·모과, (대만) 다육식물, (홍콩) 신선 가금육·계란, (마카오) 쇠고기, (뉴질랜드) 멸균가공품·사료, (브라질) 배

**나 '17년 추진계획**

◆ 중국 등 주요시장 집중공략 및 할랄시장 등 판로 다변화와 함께 농기자재·서비스·브랜드 등 연관산업 수출지원 기반 구축  
 \* 농식품 수출액 : ('16p) 64.7억불 → ('17) 70 (연관산업 25억불 등 포함 100억불)

**[맞춤형 농식품 수출 지원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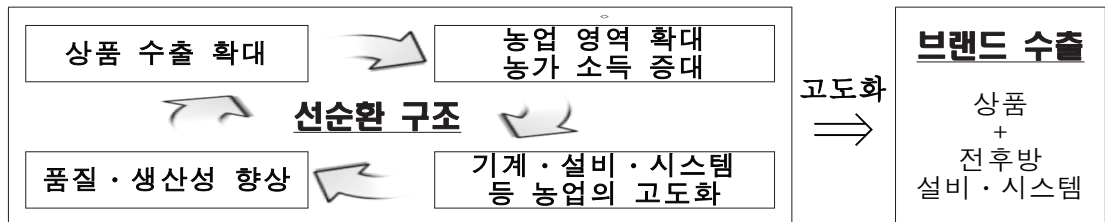
- 주력 및 신규 수출시장별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
  - 품목·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해당 시장의 주력 수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단계별 패키지 지원
    - \* 포장 및 라벨링·비관세장벽 등의 수출 컨설팅, 샘플 통관, 해외 홍보·마케팅 등 수출업체 지원 시 가점 부여, 원료구매자금 우대금리 적용
    -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**중장기 방안 마련(4월)**
  - **미개척 신규시장\***으로 전략품목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**시장개척단을 파견**하여 대형 유통업체·바이어와 수출 상담, 시장 테스트 등 지원
    - \* 인도, 카자흐스탄, 이탈리아, 브라질, 남아프리카공화국
  - 주요 수출국가 정보를 **주기적(분기별)**으로 제공하여 현지 대응력 제고
    - 국가별 위생·품질 관리 조건 등 **자가검증 시스템 구축(3월)**
    - \* 미국 '식품안전현대화법(FSMA)' 및 중국의 강화된 식품 안전기준에 선제적 대비
- 국가별로 구매력이 큰 **현지 바이어 현황을 조사·DB화**하고, **네트워크를 구축**하여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
  - 한국 농식품 구매의사가 있는 **빅 바이어**가 한국수출입은행의 **저리 용자제도(16개국 34개 은행)**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홍보**
-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**유망 플랫폼 활용 및 특화마케팅 강화**
  - 중국 **O2O/B2B 체험·판매관**에 한국 식품관을 개설(6월)하고, **현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수출국 특성에 맞는 마케팅 도입**

※ 수출진흥과 강효주서기관 044-201-2172

- 한국 농식품에 대한 **일반적 홍보**는 지양하고, 수출가능성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한 **국가별 유망품목\***에 대한 **맞춤형 홍보 확대**
  - \* 중국 전통주, 미국 기능성 쌀·홍삼제품, 싱가포르 채식주의자(vegan)용 제품 등
- 가공식품의 **국내산 원료사용 확대**를 유도하고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**인증제품**에 대한 **수출지원**으로 **농업과의 연계 강화**
  - 원료구매자금 지원 시 **‘국산 원료 구매실적’ 평가비중**을 강화하고 (16:25%→17:35), 국산 원료 사용 품목의 **수출실적 제출 의무화**
  - **국가 인증제품\***에 대해 **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** 시 우선 선정, **안테나숍 우선 입점** 등의 인센티브 부여
    - \* 6차산업자인증, 전통식품품질인증, 지리적표시, 술품질인증 등

### [관련산업까지 수출정책 외연 확대]

- **농기자재(농약·비료·종자·농기계·동물의약품 등), 외식 서비스, 브랜드 등 전·후방 산업**으로 **수출정책 외연 확대** 추진



- 수출 대상국별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과 함께 **농기계·종자 및 농자재 등 농업 연관산업 품목**을 연계한 **패키지형 수출** 추진
  - 수출 대상 국가·품목별 시장현황, 수출입정보를 수집, 분석하여 농기자재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**수출지원정보시스템** 구축(12월)
- 수출 정책영역 확대와 기자재·설비·시스템 고도화를 연계하는 **선순환 구조 구축방안** 마련(3월)
- **농업 연관 산업 제품군**에 대한 **수출통계 정비**(1월)
  - \* 인삼류 등의 면세점 판매실적도 수출통계화

## [전략적 검역협상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지원]

- 다자·양자회의(WTO·FTA/SPS 위원회 등)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적극 추진
  - 對 중국 파프리카, EU 삼계탕, 인니 유제품, 미국 심비디움·호접란 등 시장성·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집중하여 검역 협상 추진
    - \* '17년 중점 검역협상 추진 : 9개국 14품목
  
-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민관협업을 강화하고, 수출 상대국의 검역·위생 등 수입 규제 조치에 선제적 대응
  - 수출 품목별 검역 안내서 제공 및 상대국 검역관 초청(5개국) 등 추진
    - \* 수출업계 대상 검역수요 조사(1분기), 검역지원 협의회(2회) 개최
  
- ODA 사업 관리 체계 정비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(하반기)
  - 신규사업 사전조사를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로 세분화하고,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, 성과지표 측정 방안 등 성과관리 체계 정비
  - FAO·ADB 등 국제기구와 ODA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고, 우리부 ODA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도출(하반기)
    - \* '17년 ODA 예산 : 총 173억원(캄보디아 영농기술 전수사업 등 26개 사업)
  
- FTA 협상 등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,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과 연계 강화
  - \* 미 신행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
  - 상대국 수입 요구를 활용한 수출 협상 등 전략적 접근, 과학 및 국제기준에 근거한 철저한 위험분석으로 통상 마찰 사전 방지

### < 권역별 수출 추진전략 >

- (주력시장) 일본 수출 회복세 활용 및 單身세대 공략, 중국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른 영유아시장 성장, 미국 에스닉 푸드 인기 등 활용
  - (일본) 소비트렌드(간편·기능성·프리미엄, 작은사치)에 맞춰 간편·편의, 건강·미용 기능성, 中食원료, 식재료 등 전략품목 발굴·개발·시장개척 지원
  - (중국) 우유 및 분유제품의 고품질 홍보(동양인 적합 컨셉), 인삼 수출 회복을 위해 임상학적 근거 확보 및 면세점 연계 판촉
  - (미국) 에스닉푸드 인기 등 활용, 기능성쌀·소스류 및 냉동만두 (육류함량 증가) 등 중심, 교민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수출 확대 추진
- (아시아) 국가별 종교적 배경(힌두·이슬람·불교 등)·식문화·소득 수준 등 감안, 유망 가공식품 및 한식 제품 수출
  - (아세안) 면류 선호 고려 라면·소스, 중·상류층 대상 유아용 식품 등 프리미엄 및 기능성 식품 수출 주력
  - (인도) 채식주의자(60% 이상) 및 특유의 맛·향에 대한 선호 감안 전통차, 음료·라면 등의 가공식품 및 비빔밥·김치 등 한식 진출
- (신시장) 중남·아프리카 등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과 중동·유럽 권역 내 숨은 시장(hidden market) 공략
  - (중남미) 도시인구 성장,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고려하여 즉석 편이식품 수출 및 열대기후 등 감안 냉음료 등 수출
  - (아프리카) 급성장 중인 중산층 감안 라면·스낵 등 가공식품 수출 지원
  - (중동) 단맛·건강 중시 풍조 고려, 할랄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해 인삼제품·꿀·배 등 수출 주력
  - (유럽) 에스닉 푸드 인기·채식주의자 겨냥 김치 소포장 제품·글루텐 프리 간장 등 유럽 소비자 맞춤형 제품 수출, 동유럽·북유럽 진출 강화

## 2 | ICT 융복합 첨단농업 확산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시설원예 및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 실적 대폭 확대
  - \* 스마트온실('15:364ha→'16:1,077), 스마트축사('15:156호→'16:234)
  - \* 스마트팜 도입 후 생산량 27.9%↑, 고용노동비 15.9%↓, 병해충·질병 53.7%↓(서울대)
- 수출전문 스마트팜(시설원예) 신축사업 신규 도입(100억원, 10ha), 축산부문 지원대상 축종 확대('15:양돈·양계→'16:젓소·한우 추가)
- A/S 지원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추진 등 농가 현장지원 체계 강화
  - 정부 보급사업 참여 제품의 품질보증 의무화, 통합 콜센터 및 불만제로 SNS 밴드 개설,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(23개 교육장 운영)
  - 통신기업(SKT·KT) 협력, 스마트팜 설치농가에 2년간 데이터 비용 면제 및 상설 교육 확대(SKT:세종, KT:서울·용인·성주·담양·부여 교육장 운영)

#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스마트팜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, 노지작물·수직농장 등 외연 확대
  - \* '17년 보급목표(누적) : 시설원예 4,000ha, 축사 730호
- ◆ R&D 지원, 제도정비, 해외진출 등 스마트팜 산업 성장 유도

-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, 노후·영세한 시설을 이전·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(20ha) 추진
  - 조직화된 스마트팜 농가에 유통·수출 관련 사업\* 우선 지원
    - \* (유통) APC·저온저장고 설치 등, (수출) 자금·컨설팅, 수출전문단지 지정, 해외 홍보 등

※ 창조농식품정책과 문지인서기관 044-201-2419

## □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스마트농업 외연 확대

- 대파·인삼 등 노지 발작물 모델 신규 도입\*, 수직농장 실증 시범사업(3개소, 6.4억원) 추진
  - \* 밭 생산기반 정비, 밭농업 기계화 사업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
- 유통 등으로 스마트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'ICT 모델개발 과제' 발굴 및 현장 실증 추진(3월)

## □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현장지원 강화

-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생육·환경 빅데이터 수집 확대('16:120호→'17:200) 및 빅데이터 농가활용 매뉴얼 추가 개발\*
  - \* 대상품목 : ('16) 토마토 → ('17) 파프리카·딸기·참외 추가
-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업 등 민간에 개방하여 제품성능 제고 유도

## □ 기자재 표준화, 국산화 등 우수제품 시장 확대 기반 마련

- 표준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\*하고, '17년부터 단체표준 충족 장비만 보조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지침 보완
  - \* 시설원예 : ('16) 센서 등 22종 단체표준 등록 → ('17) 양액기 등 3종 추가
  - \* 축산 : ('16) 표준규격 마련 포럼 발족 → ('17) 센서 등 19종 등록
- 사료자동 급이기, 로봇착유기 등 외산 의존도가 높은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
  - \* (핵심기술개발) 농진청 → (산업화연구) 농식품부·출연연 → (보급·확산) 농식품부

## □ 스마트 원예단지, 새만금 등 간척지를 활용\*한 농업특화단지 조성 계획 등을 감안, 스마트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

- \* 새만금 농생명용지(700ha)를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전진기지로 육성(농업특화단지 시범사업 추진 등)하기 위한 '간척지 활용 종합계획' 수립(3월)

### 3 | 식품·외식산업 육성

#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규제개선, 클러스터 확충 등 식품·외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
  -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대폭 완화\*(5월), 소규모 탁·약주(하우스막걸리) 제조면허 신설(2월), 전통주 통신판매채널 확대(1월, 7월) 등 규제 완화
    - \*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(기존 88종→약 50종 추가), 심사기간 단축(120일→60)
  - 농업과 식품·외식기업간 **상생협력**을 통해 **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**
    - \* 외식 식재료 산지페어(9회)를 통한 국산 농산물 직거래 147억원 달성
  - **식품클러스터 1공구 부지조성 완료(391천㎡)** 및 기업지원 시설(파일럿 플랜트 등) 준공(9월) 등 차질없이 진행
    - \* 기업유치(누계) : ('15) 6개사(분양 6, 외투입주 0) → ('16) 25 (23, 2)
  
- **'한식문화관' 조성(4월), 식품명인 체험·홍보관 및 제2전통주 갤러리** 개관(12월) 등 홍보 강화로 전통식품에 대한 **대내외 인지도 제고**
  - \* 뉴욕시민 한식 인지도 증가 : ('14) 53.7% → ('16) 64.3
  
- **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**
  - **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**(영·유아 편식예방, 고령층 건강식단 제공 등), **'바른밥상, 밝은 100세'** 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\* 집중 홍보
    - \* 텃밭가꾸기, 채소·과일 균형섭취, 음식물쓰레기 감축, 아침밥먹기,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
  - 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**관계부처·기업·단체 등 협업 강화**
    - \* 복지부·식약처 협업 '국민공동 식생활지침' 제정(4월), 휴롬·생산자협회와 어린이 식생활교육 MOU 체결(2월), 국방부 협업 조리병·조리사 식생활 교육 MOU 체결(9월) 등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### ◆ 변화하는 소비·유통 환경에 따른 유망분야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

\*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('18~'22) 수립(10월)

### ◆ 농업과 식품·외식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,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식·전통식품 활성화

\* 외식기업 해외진출 : ('16) 5,476개소 → ('17) 6,000

### ◆ 식생활교육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우리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

## [유망품목 선제적 육성]

### □ 1인 가구\*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선제적 육성

\* ('10) 415.3만 가구(23.9%) → ('15) 506.1(27.2) → ('25) 656.1(31.3) → ('35) 762.8(34.3)

### ○ 시장(도시락, 즉석조리식품 등) 규모\* 실태조사(1월), 소비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업계·학계의 관심도 제고

\* 편의점 도시락 시장규모 : ('14) 2,000억원 → ('15) 5,000('16.11월 한국경제)

- 가정간편식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마련(4월)

### ○ 관련협회 발족(5월), 품목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계의 R&D 등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, 기존 사업 연계지원\*으로 품질 고급화 추진

\*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, 식품외식융합자금,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활용

### ○ 가정간편식의 국산 식재료 사용 제고를 위해 원료구매자금 융자, 산지직거래·aT 사이버 거래소 연계 추진

- 지역농협·가공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체와 자율적 상담 알선, 생산자 단체가 납품시 필요한 품질관리·인증 등 지원

※ 식품산업정책과 김신재서기관 044-201-2116

□ **건강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 육성**

-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(2월)하고, 유망기업을 선정(약 10개소)하여 **중점 육성**(홈쇼핑 입점 및 해외바이어 상담 등 지원)
- 국내 및 주요 수출국의 **소비특성 및 시장동향** 등 정보 제공(8월)
- 기능성식품 **유관기관간 협력\***을 통해 **단계별 지원체계** 구축
  - \* 기능성 원료 탐색·개발(농촌진흥청) → 인체적용시험 등 기능성 평가 지원(한식연) → 시제품 생산 등 제품화 지원(기능성 평가지원센터)

□ **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식품 개발 지속 지원**

- 고령자 노화 정도에 맞는 식품 기술 개발을 위해 **식품R&D 전략 사업**(3년 이상)으로 **선정**(4월)하여 집중 지원
- 의료기관, 복지기관, 학계, 업계 등 **고령친화식품 개발 협의체**를 구성하여 고령친화식품 수요 파악 및 업계 사업화 지원

**[식품·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]**

□ **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,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으로 식품·외식분야 부가가치 창출**

- 소비트렌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도기업에 정보 제공
- 푸드테크\*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**관련포럼 설립**,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 및 푸드테크 활용 등 식품·외식연계 강화 방안 마련(10월)
  - \* 전통적인 푸드산업과 O2O 기술 등 ICT 신기술 접목
- 식품·외식산업전망대회를 통해 **수요자 중심의 관련 정보·통계 제공**(11월)

※ 식품산업정책과 김신재서기관 044-201-2116

□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R&D, 인력 등 인프라 확충

- 민간 연구 보완 과제 중심으로 식품 R&D를 개편하고, 고부가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추진(현행:친환경·기능성식품→확대:식품가공설비)
- 식품·외식분야 청년 취·창업 지원 강화,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
  - \* 공개 참여형(TED형) 교육, 해외(5개국) 청년인턴(Pilot) 파견, 전통시장 '청년몰' 컨설팅 등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부지 조성 마무리 및 기업투자 유치 가속화

- \* 기업유치(누계) : ('16) 25개 기업 → ('17) 80
- 기업의 분양·입주, 공장 설립, 기술, 수출 및 판로까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사업 지원시 인센티브\* 부여
  - \* 시설현대화·원료매입, 수출물류비·컨설팅·보험 등 34개 사업 우선지원 등

□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확대('16:MOU 25건→'17:30) 등을 통해 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-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적극 홍보(6월), 지역단위 상생협력 협의체의 전국 확산('16:4개소→'17:10)
- 대량 공급처(APC·RPC), 농업법인(농업경영체 DB), 친환경·유기농 인증 정보를 담은 '원료농산물 생산지도' 구축(1월) 및 활용
- 식품기업의 원료수요(품목·수량·시기 등)를 바탕으로 산지 대량 공급처(농협·APC·RPC)와의 거래 알선

□ 외식업체 레스토랑\* 설치('16:18개소→'17:40) 및 우수외식업지구 중심으로 지역단위 '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' 확대(20개소)

- \* 레스토랑(Restaurant)+시장(Market)의 합성어로 레스토랑에서 우수농식품을 판매

## [한식 및 전통식품 활성화]

- 전국 전통시장 및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활용하여 음식관광을 상품화하고,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추진
  - 지역 대표음식과 문화·관광 자원을 연계한 ‘K-food 로드’ 확대(‘16:10개소 → ‘17:20), 외식업지구는 자율적 서비스 개선 및 품질관리 유도
  -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통해 위탁급식 업체와 계열사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(해외인증·시장정보 제공, 현지메뉴 개발 등 현지화 지원)
-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해외언론,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우리 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, 한식 해외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
  - 한식홍보·체험·식문화관 운영, 전통주홍보, 수출홍보, CEO Summit 등 K-Food Plaza를 통한 저변확대 방안 마련(5월)
- 한식과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 및 대내외 홍보 강화
  - 한식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‘(가칭)한식진흥법’ 제정 추진(12월)
  - ‘건강한食원정대\*’ 확대(12월) 등 한식·외식 분야 청년조직을 통한 정책 개발·홍보를 추진하고,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
    - \* (구성) 국내외 25~35세 미취업 청년, (역할) 정책 아이디어 발굴, 한식홍보 등
  - 한식문화관 체험프로그램 개선\* 및 문화행사·기업 연계 프로그램 유치
    - \* (현행) 국내외 외국인 위주 → (개선) 내국인 병행,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
  -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‘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’ 수립(3월) 및 전통주 개념 명확화\*를 위한 법 개정 추진(10월)
    - \* (현행) 민속주+지역특산주 등 → (개편) 민속주+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
  - 재외공관 활용(재외공관 행사시 우리술 프로모션) 해외홍보 강화

※ 외식산업진흥과 남현수서기관 044-201-2152

## [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확산]

### □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바른 식생활 교육 성과 확산

- 신체조건(몸무게·나이 등) 입력시 필요열량 및 추천메뉴 등을 제시해 주는 **Daily Food App** 제작(3월) 및 홍보 강화

### □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‘국민공통 식생활 지침’ 홍보, ‘바른밥상, 밝은 100세’ 및 가족밥상 캠페인 등 바른 식습관 실천운동 추진

- 지역아동센터, 교도소·소년원, 군장병·조리병, 기타 복지시설 등에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('16:674회→'17:2,000)

-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 육성 및 기존 활동 강사 심화교육 추진

### □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각 및 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

- 어린이집에 텃밭상자, 창작동화책·애니메이션 등 교재·교구 보급, 국산 과일·채소 간식지원 등 추진('16:140개원→'17:200)

- 초등학교는 **쌀 중심 식습관학교** 운영 확대('16:188개교→'17:200), **방과후 교실**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강화

### □ 학교 영양교사 식생활 직무연수를 확대('16:500명→'17:1,000)하고, 학교 급식과 연계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 추진

- 대한영양사협회와 협력하여, 우리 농산물 활용 급식메뉴 개발, 수급 정보제공 등 **수급안정 협력 체계** 강화

\* (영양사협회 홈페이지) 농산물 수급·물가 정보 등 게시, (급식전자조달시스템) 영양정보, 계절식단, 농산물 수급 상황을 고려한 레시피 등 게시

※ 식생활소비정책과 김기성사무관 044-201-2272

## 4 | 농생명산업 육성 및 R&D 강화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**종자 등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정책 범위 확대, 곤충 등 신성장 분야 발굴**
  - (종자)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산 종자 개발을 통하여 **종자수출 919만불, 수입대체 81억원 및 종자로열티 지불액 4% 절감**
    - \* GSP 수출액/수입대체액 : (3년차) 837만불/61억원 → (4년차) 919/81
  - (곤충) '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'을 수립(3월)하고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확대\*(12월)하는 등 식품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
    - \* (기존) 메뚜기, 누에번데기, 백강잠 → (개선) 고소애, 쌍벌이, 꽃벙이, 장수애 추가
  
- **여가, 치유 등 농업의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**
  - (도시농업) 지자체·시민단체·국회 등 협업을 통해 **전국적 실천분위기를 확산**하고, 국회텃밭·꿈틀텃밭학교 운영 등 **활성화 기반 확충**
    - \* 지자체 조례제정(누계 91건), 지역협의체 구성(99), 도농상생협약체결(83) 등으로 도시농업 참여 160만명, 텃밭면적 1,001ha 달성('10년 대비 각각 10.5배, 9.6배 증가)
  - (반려동물) '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'\* 마련(7월) 및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한 **기초통계조사**(사육형태, 관리상태 등) 실시
    - \* 생산업 허가제 전환, 경매업 신설, 적법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 허용, 동물 병원·의약품 규제 완화, 펫용품·사료 R&D 지원,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
  
- **창조농업 7대 과제 발굴·추진, R&BD 투자 확대('15:70억원→'16:98)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사업화에 R&D 역량을 집중**
  - 벤처·창업 기업, 자조금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**R&D 바우처제도** 등을 신규 도입하여 **기술사업화율 향상**
    - \* 기술사업화율 : ('14) 29.8% → ('15) 34.1 → ('16) 40.3

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종자, 바이오, 곤충산업 육성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확충
- ◆ 치유 등 정서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, 도시농업 등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한 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
- ◆ 신성장 분야 중심 R&D 투자 효율화 및 기술 사업화율 제고
  - \* R&D 기술 사업화율 : ('16) 40% → ('17) 42

### [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]

- GSP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른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품종개발(61개) 및 종자수출(2,329만불) 목표 달성 추진
  -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\*하는 등 GSP 개발품종 상품화 병행 추진
    - \* 이마트·하나로마트 계약재배(30농가), 농업인·마케터 대상 신품종 재배지 홍보 투어 등
  - 수동적인 로열티 절감에서 적극적인 로열티 수취품목 개발로 R&D 전환
    - \* 대상작물(9종) : 장미, 국화, 난, 거베라, 카네이션, 참다래, 버섯, 약용, 차
- 종자 삼각벨트(민간육종연구단지-농진청-방사선육종연구센터)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종자기업 지원 강화
  -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R&D 기술지원서비스 추진(4월부터)
  - 농고·농대 대상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·보급하여 종자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학교-기업간 실무인력 중개\* 추진
    - \* 산학관연협의회(2~4회/년)를 통해 농생명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종자기업에 중개
-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(10.26~28일, 김제), 국산 종자 해외시범포 운영 확대\*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
  - \* ('16) 5개국(중국·인도·인니·베트남·미국) 250품종 → ('17) 6(세네갈 추가) 270

\* 종자생명산업과 양미희연구관 044-201-2481

## [교부가가치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]

□ 식품, 화장품 등 유망 분야별 기술수요 및 시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핵심소재 선정·지원

○ 빅데이터 분석\*을 통하여 상위선점 가능한 소재 선정 및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

\* (기술) 논문 및 특허 데이터에 대한 과학지도 작성 및 데이터 마이닝, (사회) 검색 엔진 및 웹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이슈 발굴

○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('17, 372억원)을 통하여 농생명자원 유래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R&D투자 강화

□ '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('14~'21)'을 통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원천기술을 확보, 산업소재 개발 및 산업화 촉진

○ 미생물 세포공장\* 관련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기능성 검증 이후 유용물질 대량증식 기술개발 추진

\* 미생물은 균주 자체가 소재이며,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, 청국장 등 발효 식품 강국으로 신규 유용균주 탐색·개발 가능성이 높음

○ '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' 및 '미생물가치평가센터' (정읍)를 미생물 산업화 거점으로 활용

□ 농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명자원정보서비스(BRIS) 개편

○ 기존의 특허, 논문정보에서 기능성 자원의 성분, 효능에 대한 정보를 추출·재가공하여 소재 라이브러리 구축

○ 생명자원 특허맵(10종)\*을 구축하고 시장성·기술성 정보 및 주요 원료자원의 수출입정보, 유통정보를 수집·제공

\* 기능성식품, 바이오화장품, 사료첨가제, 식품첨가물, 발효식품, 바이오 농약 및 비료, 동물약품, 천연항생제, 천연아미노산

※ 종자생명산업과 안정모사무관 044-201-2475

## [곤충산업 기반 구축]

- 곤충종자보급센터 신규조성(지자체 공모예정) 및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으로 곤충 사육·유통의 영세성 극복
  - 질병저항성 우수 품종 보급, 불량종충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'곤충종자보급센터'('17~'19, 1개소)를 조성
  - 농가(10~15개소), 지자체, 생산자단체 등으로 유통사업단을 구성(4월), 공동출하 및 품질관리로 수요자(기업)가 요구하는 공급량 및 품질확보
- 곤충산업의 범위 확대, 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풀무치, 아메리카왕거저리, 수벌번데기 등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 추진
  - 산지에도 곤충사육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
    - \* 임업용 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유로 '곤충사육사' 포함
-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대\*(8개소→10)하여 산업저변을 강화하고,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
  - \* 경기·경남 농업기술원, 예천·양주·청주·대전·고흥 기술센터, 가톨릭상지대 등
- 현장연계형 3대 핵심과제(기능성, 대량생산·유통, 질병관리) R&D투자 강화
  - 건강기능성 식품 활용 등 새로운 곤충 수요 발굴을 위한 R&D 지원
    - \* 식용곤충(흰점박이꽃무지, 갈색거저리 등) 항혈전효능 검증연구('15~'17)
  - ICT기반 대규모 자동화 사육시설 모델 개발 및 연중사육 시스템 보급
    - \* 곤충자원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('16~'20)
  -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진단마커 개발 등 주요 병·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어기술 개발
    - \* 산업곤충의 질병발생 현황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

## [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첨단 농기자재 개발]

-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·여성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CRT\* 접목 소형 자동화 농기계 개발·보급\*\* 및 실증체계 구축

\* ICT+Robot : Information & Communication & Robot Technology

\*\* 노동력 투입이 많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 정식, 수확기 집중 개발 등

- 무인이동체(Drone), IoT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농업의 첨단화 유도

-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시스템 고도화, 작황예측 등 농정지원 강화 등을 위한 다부처(농식품부, 미래부, 산업부) 공동기획 실시('16~'17)
- 빅데이터 기반 농작물의 수급예측 모델('14~'17, 6억원), 지능형 스피드 스프레이어 개발('16~'18, 7억원), IoT 기반 저수지 위험 예·경보시스템 개발('16~'18, 7억원) 등 추진

-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생육·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·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관리 SW 개발 추진

- 생육모델\*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, 연차별로 대상 품목 확대('17~) 추진

\* 생육단계별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의 개화시기, 착과수, 과실 생장량, 수확시기, 수확량 등을 예측하는 통계모델로, 스마트팜 SW 개발에 선행될 필요

## [도시농업 활성화]

- 학교텃밭, 복지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모델을 확산하고, 국민의 정서적·신체적 건강도모를 위한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

- 꿈틀 텃밭학교(4개소), 학교텃밭(43백개소), 복지텃밭(양로원, 복지원 등) 조성, 릴레이 박람회 및 학술행사(10여회) 개최 등 도시농업 분위기 확산
- 전문가 포럼(분기별)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(8개소) 추진

※ 창조농식품정책과 김호균사무관 044-201-2415

※ 종자생명산업과 강승규사무관 044-201-2477

## [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]

### □ 반려동물 보호·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관리 강화

- **(생산)** 생산업을 ‘신고제’에서 ‘허가제’로 전환하고, 반려동물 경매에는 생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 허용(12월)
  - \* 소음 및 냄새저감 시설, 사육시설, 운동장, 분뇨처리시설 등 동물생산업 특성을 고려한 생산시설 표준모델 개발·보급(12월)
- **(판매)** 경매장 특성 반영한 시설·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,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** 마련(12월)
  - \*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‘온라인 개체관리시스템’ TF 구성·운영(6월)

### □ 반려동물 소유자·영업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 도입

- **(동물보호경찰)** 동물학대, 불법 영업자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**사법경찰관리** 제도 도입(12월)
- **(신고포상금)**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준수 위한 신고제도 도입(12월)
  - \* 신고대상: 반려동물 미등록, 외출 시 준수사항 미이행, 인터넷 불법판매 등

### □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

- **(서비스)** 미용·카페·위탁관리·운송업 등 서비스업 신설 및 업종별 관리기준 마련을 통한 **제도권 편입**(12월)
- **(의료)**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‘**동물간호복지사**’ 제도 도입(12월), 동물보험(국내 가입:0.1%) 활성화를 위해 **진료비 공시제** 연구용역 추진(4월)
- **(인프라)**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(4개소), 거점별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 건립(3개소)

## [R&D 투자 및 운영 효율화]

### □ 정책현안·현장수요 중심 R&D 운영으로 투자효율성 강화

- 10대 전략적 투자분야\*를 선정, 사전기획 및 부·청간 기능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과제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

\* 쌀 기능성소재, 스마트팜, 고령·여성친화 농기계, 가금류 질병대응, 수출활성화 등

- 출연연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융복합기술 분야에 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목, 단기간에 연구성과 창출 도모

\* (예) 스마트팜 R&D 협의체 구성, 부·청·출연연(KIST, ETRI) 등이 기획부터 공동 참여

### □ R&D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전문성·투명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

- 인공지능, 로봇 등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확충\*하고, 기존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실적, 연구활동 등을 평가하여 위원별 등급 재 조정

\* 연구재단, 산기평 등 전문기관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확충

- 평가위원 성실도 평가\* 시범도입 등을 통한 질적 관리 강화

\* 간사가 위원별 태도·평가방식 등을 평가, 필요시 평가위원단 퇴출 등의 조치 실시

- 과제 평가시 매출 창출효과,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사업화지표 비중을 강화(40%→50)하여 R&D 성과의 사장 방지

- 공모·평가 서식 간소화, 단순 보고절차 간소화,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등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최소화

### □ R&D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

- 농식품 벤처·창업기업 대상 R&D 바우처사업('16:20억원→'17:30) 및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('16:94억원→'17:103)

- 신기술인증,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등 후속 지원사업 내실화

※ 과학기술정책과 안유영사무관 044-201-2452

## 4.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

### 1 |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
#### 가 | '16년 주요 성과

- ICT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추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젊은 미래 농업인재 유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
  - ICT 기술교육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\*(4개과정, 167명) 및 공동실습장(3개소 900명), 농업마이스터과정(2천여명) 운영
    - \* 토마토 전문교육 수료생 일반농업인 대비 농업소득 35.7%↑, 생산량 15.1%↑
  - 실습 중심 농대 창업과정 신설(5개교 130명), 창조농고 신입생 모집(3개교 250명), 한농대 정원 확대('16:390명→'17:470→'18:550)
- 농식품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
  -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(3개소)를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('16:13백건), 제2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로 창업붐 조성
    - \* 농식품 벤처기업 : ('12) 1,156개소 → ('14) 1,235 → ('16.11월) 1,719
  - 모태펀드 확대\*, 크라우드 펀딩 도입\*\* 등 민간투자 유치 강화
    - \* '16년 1,455억원 규모 신규펀드 조성(스마트팜 500, 6차산업 100, 수출 100 등)
    - \*\*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영, 총 26건의 투자 유치
  - 후계농업경영인 창업·운영자금(18백명), 청년인력 창업안정자금(2백명) 등 젊은 층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
- '농식품 일자리 포털'을 구축('16.10월)하는 등 도농간 일자리 연계를 확충하여 근로인력 중개실적이 전년 대비 15만명(34%) 증가

**나 '17년 추진계획**

- ◆ 생산·유통·수출·R&D 등 농식품 전분야 취·창업 지원을 강화하여,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
- ◆ 품목 기반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과 전문 경영의식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

\* 품목별 전문교육 교육생 : ('16) 3,200명 → ('17) 4,000

**[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]**

□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농식품 분야 창업을 확대 하고,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○ 취·창업 관련 모든 지원사업\*을 유형별로 분류하여, 정책 수요자의 편의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(상반기)하고,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

\* 식품외식종합자금, 후계농육성사업, 귀농창업지원자금, 농식품모태펀드 등

○ 주요 대학 내 '취업지원센터' 등과 연계, 농식품 분야 취·창업 정보\*를 제공하고, 대학생 대상 취·창업 교육훈련 기회 제공

\* '농식품 일자리 포털', '농업·농촌 유망일자리 10선'(농진청) 등 활용

○ 농식품미래기획단\*의 활동영역을 기존 식품수출 분야 취업지원 위주에서 농식품 전분야 취업·창업 지원으로 확대 추진

\* 전국 197개 대학 2,856명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 인재육성, 정책홍보, 국내외 인턴쉽 제공 등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

□ 전통시장 및 로컬푸드 매장 등 유통시설과 지역별 특화품목·부존 자원 등을 활용하여,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

○ 영세농가, 중소 식품업체 등의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을 위한 '스마트 스튜디오' 활성화('16:172개업체 지원→'17:210)

\* 생산제품 사진촬영,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, 마케팅·홍보 등 지원

※ 경영인력과 이세환사무관 044-201-1538

- 지역농산물 또는 해당시장에서 즉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각종 요리를 구성·판매하는 '로컬푸드 체험 레스토랑' 창업 지원(2개소)
  - 외식·화훼산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직접 매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(16개팀)
  -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을 위한 '라이스랩(Rice Lab)' 지원
- 창업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창업보육 및 판로 등 맞춤형 지원 확대
-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를 확대('16:3개소→'17:5)하고, 특화센터를 통해 창업지원 정보 제공 및 우수 창업자 보육 지원 등 추진
    -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문 홈페이지 구축('10월)
  - 판로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제품관(A-startup 마켓) 및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, 6차제품은 6차산업 전문 안테나숍과 연계한 시장테스트 지원
-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지 및 창업 금융지원 확대
- 신규 취농인 및 2030세대 청년 창업인 등에게 농지은행 사업을 활용하여 맞춤형 농지 임대 지원
  - 조성액 전액을 농업·바이오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한 종합펀드 (ABC펀드:Agri-Bio-Capital) 조성(200억원)
    - \* 포트폴리오 투자방식을 통해 수익률 개선 및 창업·벤처 투자 리스크 경감
  - 농식품자펀드 청산시기가 도래하는 '17년 부터 세컨더리 펀드\*를 조성(100억), 투자조합의 청산 지원 및 무리한 처분손실 방지
    - \*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하는 펀드

- 일반국민,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**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활성화**
  -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**운영협의회\***를 운영하여, 컨설팅·홍보·후속투자 연계기능 등 **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의 효율성 제고**
    - \* 농식품부, 농금원, 전용관 운영업체 3곳 등으로 구성
  - **크라우드 펀딩 이용도 제고**를 위해 금융위 공동 지역설명회 확대(6회), 크라우드 펀딩 전용관의 컨설팅 및 후속투자 연계기능 강화 등 추진

### [미래 농업인력 육성]

- **창조농고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\*** 등 **전문 직업교육 운영을 내실화**하고, **실습중심의 취·창업교육 강화**
  - \* 창조농업선도고교 개교(250명, 3월), 영농창업특성화과정 2년차 운영(260명)
- **농대생 장기 현장실습 및 영농승계 교육 확대**(‘16:50/90명→’17:300/1,000), **중학생 및 도시 청년층 대상 진로체험\* 운영 활성화**
  - \*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캠프 신규 운영, 현장체험 지원 및 농산업 유망직종 홍보강화
- **한농대 입학정원 확대\***를 계기로 시설원예·산업곤충·가공학과 신설 등 **학과개편 및 입학전형 개선 추진**(6월, ‘1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)
  - \* 한농대 입학정원 : (‘16) 390명 → (‘17) 470(80↑) → (‘18) 550(80↑)
- **농업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농식품 교육 우수강사를 양성**하고, **교육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추진**
  - 농식품 분야 **은퇴자 및 현장 농업인 포함 우수강사 DB** 구축(2월), **농업강사 인증제 도입 등 우수강사 양성방안 마련**(6월)
  - 농업인력포털의 농업교육 종합 DB를 활용한 **수요자 맞춤형 교육 체계 정립\***(1월), **실습확대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교육성과 제고**
    - \* 사전 역량진단 및 교육과정(지자체·공공기관·민간교육기관 등) 선택 → 교육 및 수료 → 역량 재진단 및 성과평가 → 이력관리 등 전 과정을 농업인력포털에서 관리

※ 경영인력과 배민식사무관 044-201-1532

- ICT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('16:4개→'17:7) 및 공동실습장('16:3개소→'17:7) 확대, 가상현실(VR) 교육콘텐츠 개발(2월)
- 첨단실습교육 강화 등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개편(2월)
-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마련
  - 지자체의 후계농 선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후계농 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(6월)
    - 충분한 창업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후계농자금 사용기한 확대(2년→5)

## [농업법인 내실화 및 인력불균형 해소]

- 농업법인 운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부실 농업법인 정비\*를 추진하고,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\*\* 마련(9월)
    - \* 농업법인 전국 실태조사('16.5~10월) 결과 시정명령 대상 5,288개소, 해산 명령청구 대상 1,880, 과태료 부과 대상 4,239
    - \*\*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및 농업회사법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 추가 등
-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근로인력 적기 공급 추진
  - 농산업인력지원센터('16:16개소→'17:22) 및 영농작업반('16:15개소→'17:20)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업·농촌간 인력 불균형 해소 추진
  - 농축산분야 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속 추진\*(6,600명 이상)하고,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화 추진(법무부 협조)
    - \* 외국인 전체 쿼터는 감소하나(58천명→56천), 농축산분야는 전년수준 유지

## 2 |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중심지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
  - (중심지활성화) 읍면 소재지에 문화·복지·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집중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확대
    - \* 읍면 중심지 선도지구 : ('15) 15개소 → ('16) 33(누적)
  - (창조마을)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ICT 융복합 서비스를 접목한 창조마을 23개소 조성 추진(연내 15개소 이상 완료)
- 현장포럼, 행복마을만들기,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등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
  - \* 현장포럼 : ('16) 418개 마을 / 행복마을만들기 : ('15) 2,017 → ('16) 2,664
  - \*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: ('15) 5,390개 마을 → ('16) 9,196
- 지자체, 농진청, 농관원 등과 단계별 협업체계\*를 구축,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맞춤형 활성화 지원
  - \* (1단계) 시·군 전수조사(분기별) → (2단계) 농진청·산림청·농관원 점검(반기별) → (3단계) 집중관리지구 대상 전문가 합동점검 및 컨설팅(4분기)

#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가치 있는 농촌의 유·무형 자원을 디자인하여 일터, 삶터, 쉼터로서 복합 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 조성(80개소)
- ◆ 지자체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을 통한 ICT 창조마을 20개소 조성

## [지역별 자원을 디자인하여 부가가치 제고]

- **어메니티 자원 활용, 시설·거점간 연계 등 공간디자인을 통해 생태복원,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'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(80개소)' 추진\***
  -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**협업 지원형**과 **지자체 자율형**으로 구분하고, **자원 발굴, 접근성 개선 및 공간 재활성화** 등 지원
    - (**협업 지원형:10개소**) 지자체 주도로 농식품부·전문가 협업을 통해 **수자원 활용 및 거점-시설 연계** 등 집중 지원(개소당 40억원)
    - (**지자체 자율형:70개소**)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테마를 활용해 **1촌 1디자인** 또는 시군단위 특색 있는 **생태문화공간 조성**
      - \* 기존 창조적마을만들기(개소당 5~10억원) 및 시군창의사업(개소당 10억원) 활용
  - **자연생태형\*** 및 **역사문화형\*\*** 등 지역별 특색있는 공간 디자인 추진
    - \* 물, 동식물, 지형 등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테마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조형미 추구
    - \*\* 전통구조물(정자, 사당), 신앙공간(돌무덤, 성황당) 등 문화유산을 테마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
- **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,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사업, 관련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개발로 시너지 효과 제고**
  - **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간 디자인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청년 층의 참여방안 적극 강구**
  - **사업 대상지 선정단계부터 6차산업 및 농촌·외식관광 등 기존정책과 연계방안 검토**

## [농촌 정주여건 개선]

- 읍면 중심지활성화, 빈집정비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내실화
  - 지역 특성에 맞는 **중심지 활성화**를 위한 **선도지구 기본계획 확정**(18개소, 2월) 및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**통합개발\*** 시범사업 추진(1개소)
    - \* ①중심지 기능 확충 + ②중심지-배후마을 연계프로그램 + ③배후마을 개발
  -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귀농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실태 조사, 제도정비 등을 포함한 **‘농촌지역 빈집 활용방안’** 마련(3월)
  
- 안전·위생 등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추진
  -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·상하수도 및 생활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**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지원**(35개소) 강화
  - 환경부·지자체 협업을 통해 **슬레이트 철거를 지원**하고, 노후·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**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속 지원**
  
- 성과점검,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창조마을 조성사업 확산
  - 기 조성지구(23개소) 대상 **운영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홍보**(11월)
    - \* 우수사례 경진대회(11월), 인센티브 제공(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시 가점)
  - 원격건강관리 등 **지역 특화서비스** 및 지속적인 **유지관리 방안** 등을 고려하여 **창조마을 신규 조성**(20개소 이상)
    - \* 대상지 평가 및 선정(3월) → 계획수립 등 사업시행(4월부터)
  
- 마을가꾸기, 환경정비 등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촉진
  - **함께 가꾸는 농촌운동**은 주민의식 선진화,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는 **‘Clean Agriculture 캠페인’**으로 확대하여 **내실 있게 추진**
    -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(8월)와 연계,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유도
    - \* ‘클린 농촌운동’ 발대식 개최(2월), 우수 지자체 포상(5개, 8월)
  - 현장포럼 표준교재 개발, 지역리더 과정 평가 및 개선(3월) 등 지역 주민 **자발적 참여역량 강화**

※ 지역개발과 김정옥서기관 044-201-1554

### 3 귀농·귀촌 활성화

#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- 귀농·귀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
  - 사전 정보제공·교육·실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귀촌인 증가
    - \* 귀농·귀촌 가구수 : ('13) 291,040가구 → ('14) 310,115 → ('15) 329,368
    - \* 1년이상 준비후 귀농·귀촌 비율 : ('11~'12) 55.3% → ('13~'14) 60.3
  -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귀농·귀촌인이 지역 공동체 리더, 6차산업 창업 등으로 확산되어 지역 역동성 제고
- 귀농·귀촌 증가세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충
  - 창업자금 확대('15:1,000억원→'16:1,500) 및 주택자금 금리 인하('15:2.7%→'16:2)
  - 주거 및 실습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('15:70개소→'16:140)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('15:2개소→'16:7) 확대

#### 나 '17년 추진계획

◆ 귀농·귀촌 단계별(정보제공 → 실습·교육 → 주거·정착) 지원 및 청년층의 귀농·귀촌 촉진 지원 강화

\* 2030 귀농창업 : ('15) 1,150가구 → ('17) 1,250 / 3년내 역귀농률 8% 미만 유지

- 금융·마케팅 등 귀농·귀촌인의 다양한 재능을 농업·농촌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 및 정보제공
  - 지역 일자리정보 DB와 귀농·귀촌인 DB(자격증·경력 등)를 연계하여 귀농·귀촌인 희망 일자리연계 서비스 제공(8월)
  - \* 고용부(고용복지+센터), 여성가족부(새일센터)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 구축(2분기)

-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'귀농·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' 구축(11월)
  - \* 중앙정부·지자체 지원정책, 지역별 빈집·귀농인의 집, 농지, 재배품목,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, 지역특화 품목, 멘토링 전문가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 one-stop 제공

□ 청년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육 및 실습 강화

- 청년 귀농·귀촌 확대를 위한 청년특화 교육\* 확대 및 '청년 창업농 교육농장'\*\*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(6월)
  - \* 2030 창업과정(2기), 대학교 교과개설(10개교) 등 다양한 특화교육 실시
  - \*\* 지역 선도농가, 농업 마이스터, 신지식인 등을 활용하여 청년 귀농 창업인들이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농장
- 귀농·귀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
  - 귀농·귀촌 유형(소득형·전원생활형 등)에 따른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(9월) 및 분야별·특성별 교육기관 지정(11월)
  -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\* 및 온라인 교육 강화(20개 과정 신규개발)
    - \* (청년층) 전역예정 군인·직장인 야간과정, (중장년층) 군인·경찰·대기업 퇴직자 과정 등
  - 귀촌인의 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\* 개설(6월)
    - \* (초급) 영농창업교육과정 개설(농업기술센터), 과학영농 실증 첨단 시범포(27개소, 기술센터) 견학, (중급) 스마트팜 비즈니스 교육 운영(귀농창업지원센터)

□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 제공 및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

-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인의집 조성 확대('16:140개소→'17:210), 귀농·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\* 추진(LH, 7개시·군)
  - \*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 선정→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, 주택단지 건설 후 분양 임대
- 예비 귀농·귀촌인 농촌 생활·문화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(1분기)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 교육 확대
-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(10월) 개최, 귀농·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·문화제 활성화
  - \*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대학교 연극반 등 활용한 '융화지원 상황극'을 공모, 농업인 교육·박람회 등에 활용

## 4

## 현장중심 규제개선 및 소통 강화

### 가 '16년 주요 성과

#### □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

- '농정신문고'를 운영(장관 2회 등 총 14회)하여 온라인(국민신문고 등)·현장방문·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건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
- 시도 농정국장회의 및 지역담당관 제도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(92건)
- 핵심개혁과제 및 주요 현안·이슈와 직결되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(9월부터 장관 45회 등), 정책 수요자와 직접 소통

\* 과수 일소피해 재해보험 지원 신설('17년 시행)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

#### □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총 326건의 규제개선\*

\* 규제개선 T/F 11회, 규제개혁 현장포럼 3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

- 농업진흥지역 해제·변경(10만ha),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·체험·판매시설 입지 완화 등을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
  - 농어촌민박 인정범위 확대(별채 허용) 및 석식 허용,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확대(공동체→개별경영체 포함) 등 6차산업 활성화
  -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(주소지→모든 지자체) 등 국민 불편 해소
- ☞ 과급력이 기대되는 규제 개선과제 분석결과(13건, 농촌경제연구원), 향후 10년간 2.4조원 규모의 경제효과 기대

### 나 '17년 추진계획

- ◆ 정책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 강화
- ◆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

※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남진사무관 044-201-1346

□ 농정신문고·현장행보 등 농업인·국민과의 소통활동 강화

- 농정신문고를 정기 개최(장관·국장 각 월 2회)하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하고, 브라운백 미팅(장관) 등 외부 의견수렴 채널 확대
  - 현장행보는 농정성과·정책발표 등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
- 기업·협회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개선 건의 과제 발굴 확대

□ 주요 농업인단체와 정기적인 정책포럼·간담회 등 협치농정 실천

- 농업인단체장과 '금요농정포럼'(격주)을 통해 주요 농업정책·현안\*에 대한 추진방향 논의 및 공감대 형성
  - \* 직불제 개편방향,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, 최근 FTA 동향 등
- 농업인단체 사무총장과 '농정협의회'를 개최(분기별)하여 주요 농정 현안 설명 및 사전 의견수렴 활동 강화

□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·개선 추진

- 농식품 규제개선 T/F 및 포럼 운영(매월) 및 장관주재 현장포럼(반기별)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
- 규제개혁 과제 대국민 특별 공모(5월), 성과사례집 발간, 언론홍보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 제고

□ 소속·산하기관,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업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

- 핵심과제 성과 도출 및 당면현안 해결 등을 위해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역량 결집, 협업과제 발굴·추진(수시)
- 시장군수협의회, 농식품 상생협력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, 주요현안 공유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

